
2023년도 해외선진지 비교시찰 관련

국외 정책연수 결과 보고서



인천광역시 중구의회

Jung-Gu Council, Incheon Metropolitan City

목 차

I. 연수총평	2
II. 연수개요	4
III. 연수일정	5
IV. 국가별 연수결과	6
□ 프랑스	7
□ 스위스	12
□ 이탈리아	17
V. 분야별 연수과제(요약)	25
□ 원도심 도시재생 및 주민 중심 도시 조성(A분담)	26
▶ 도시재생 사례를 통한 원도심 정책(정동준 부의장)	27
▶ 전통시장 활성화를 위한 원도심 정책(이종호 운영총무위원장)	28
▶ 노인복지시설 운영 사례를 통한 노인복지 정책(김광호 의원)	29
□ 자연 관광자원 활용 및 문화 관광 활성화 방안 탐색(B분담)	30
▶ 종교건축물을 활용한 관광테마 상품 발굴(한창한 도시정책위원장)	31
▶ 자연관광자원 활용 사례를 통한 문화관광 정책(윤효화 의원)	32
▶ 수자원 활용한 섬 관광 활성화 정책(손은비 의원)	33
VI. 분야별 연수과제(원본)	34

2023. 3. 27. ~ 4. 4.(7박 9일) 일정으로 12명의 연수단이 “도시재생·관광 활성화, 노인복지 증진”을 주제로 유럽 3개 지역에서 정책연수 진행

인천광역시 중구의회 의원 정책 제안 모티브 획득

1. 도시재생을 통한 관광 활성화 성공사례에 대한 다각적 연수 실시

→ 전국시도지사협의회를 통한 전문성 있는 연수 기관 섭외로 파리기발 공사(SEMAPA) 주도로 진행된 리브고슈 재개발 사업 관련 홍보관과 지역 일원을 공식 방문하여 원도심 낙후지역 도시재생 정책 수립에 필요한 자료를 습득하고 성공한 사례를 접목하여 우리 구의 철도부지 활용 가능성을 구상해 보는 계기가 됨

2. 선진 노인복지 시스템 연수, 우리 구 정책에 가능한 방안 모색

→ 스위스 노인복지시설 공식 방문을 통해 선진 노인복지 정책에 대한 이해도 제고 및 우리구 원도심 고령화 추세 맞춤 대응 방안 도모하는 계기가 됨

3. 지리적 특성을 이용하여 체계적으로 관광자원 개발한 선진 정책 습득

→ 섬지역이라는 지리적, 문화적 약점을 극복하고 특성을 극대화한 베네치아의 관광 활성화 사례 벤치마킹을 통한 영종·용유 지역 및 무의도 일대 주민 친화적 지역개발 및 관광 활성화 정책 수립이 필요하다는 의견을 나눔

→ 유럽 각 나라의 중세, 근대 건축물, 종교시설을 관광자원으로 활용한 사례를 직접 살펴보고 우리 중구의 근대 시설 관광지화 방안 모색하는 계기가 됨

소통과 준비를 통한 내실있는 연수

1. 연수 전·중·후 충분한 소통으로 정책 토론을 실시함

- 연수 전 정책연수에 대하여 토론을 통하여 의원별 개별 주제를 확정하고, 분담별 공통 주제를 정하여 개별 연수자료를 조사하였으며, 기관방문을 위한 사전질문을 완성하였음
- 연수 중에는 힘든 일정에도 현지에서 5차에 걸쳐 개별 주제에 대한 의견 교환을 이어 나갔고, 연수를 마친 후에는 3차에 걸쳐 주제 토론회의를 마친 후 보고서를 함께 완성하였음

2. 연수기관 방문을 적극적으로 이끌어 내고, 현지 소통도 강화함

- 연수 목적별로 전국시도지사 협의회에 방문 기관을 적극 섭외 하여 당초 3개소 중 이탈리아를 제외한 2개소 방문을 확정하고 사전 조사 자료를 중심으로 협의회 및 통역사들과 사전질문을 공유하였음
- 방문 기관에서도 연수단 구성과 목적에 대하여 충분히 협의한 덕분에 사전질문 내용에 대하여 충실히 답변하여주었으며, 부족한 사항은 상호 현장 질문을 통하여 적극적으로 질의하고 의견 제시하여 나가면서 연수내용을 알차게 채워 나갔음
- 또한, 기관방문 후에는 의원들과 중요한 점을 서로 토론하여 개별 및 공통 주제에 따라 정리한 내용을 간담회 실시를 통하여 종합 정리하여 결과 보고서를 완성함으로써 목표 달성에 최선을 다하였음

당해연도 연수계획을 전년도에 수립

- 계획 단계에서 연수 진행 전까지 준비시기 및 일정이 충분하지 못하여 성급하게 진행되었고, 이에 따른 계획 변경이 불가피하게 된 점이 아쉬웠으며, 이러한 경험을 바탕으로 차기 연수는 전년도에 본예산 수립 시기에 맞춰 연수단 규모, 연수지역, 연수 방향 및 목적을 확정하여 예산에 반영하고 준비함이 바람직할 것으로 의견을 모음

- 연수기간: 2023. 3. 27(월) ~ 4. 4(화) / 7박9일
- 연수국가: 프랑스, 스위스, 이탈리아 3개국
- 연수목적

인천광역시 중구 주요 현안 사항인 도시재생, 관광 활성화, 노인복지 정책과 관련된 선진 정책 비교·시찰을 통해 의정 자료를 수집하고 이를 중구 의정활동에 활용할 방안을 모색하고자 함

- 연수대상: 12명(의원7, 직원5)

연번	직위	성명	성별	담당업무
1	의장	강후공	남	정책연수 단장 및 보고서 검수
2	부의장	정동준	남	원도심 도시재생 분야 정책연수
3	운영총무위원장	이중호	남	전통시장 활성화 분야 정책연수
4	도시정책위원장	한창한	남	종교 연계 관광 활성화 분야 정책연수
5	의원	윤희화	여	관광객 편의 증진 분야 정책연수
6	의원	김광호	남	노인복지 분야 정책연수
7	의원	손은비	여	수자원 활용 관광 분야 정책연수
8	의회사무과장	박상규	남	정책연수 현장 진행 총괄
9	의정담당	윤숙로	여	원도심 도시재생 및 전통시장 활성화 분야 보고서 작성 지원
10	의사담당	안영미	여	노인복지 및 문화 관광 활성화 분야 보고서 작성 지원
11	주무관	조민성	남	정책연수 현장 진행
12	주무관	김동기	남	현장기록 사진 촬영, 편집 배부 지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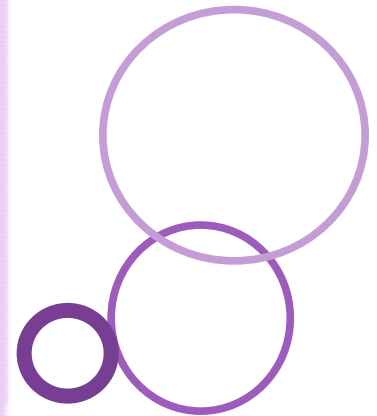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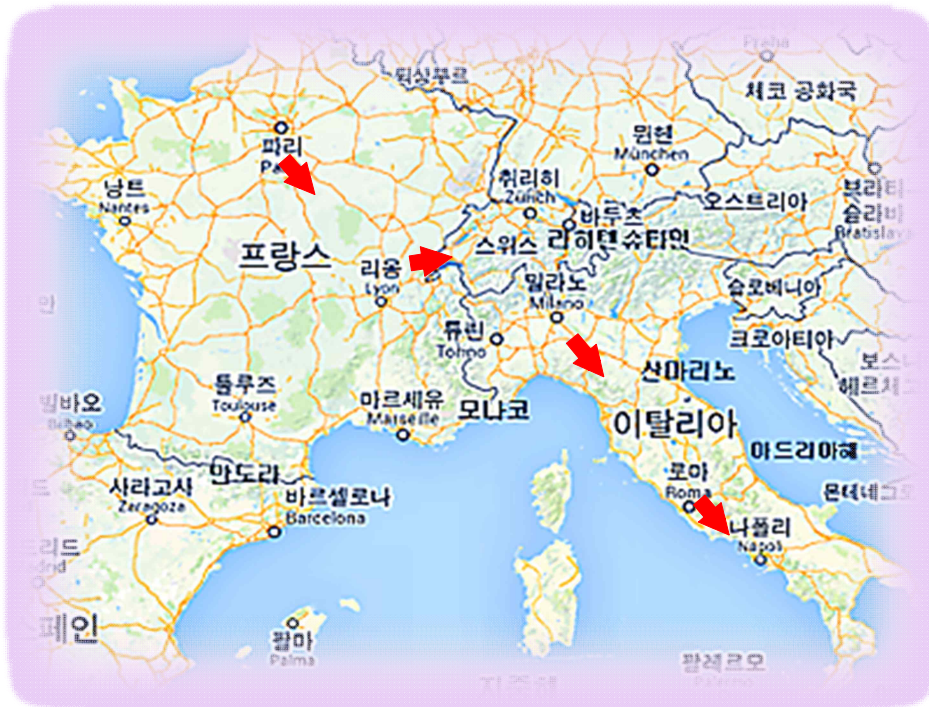
Ⅲ

연 수 일 정

일자 (요일)	도시	시간	세부일정	비고
3/27 (월)	인천 파리	09:40 16:45	- 출국(한국 /항공) - 입국(프랑스 /항공)	AF267
3/28 (화)	파리	09:30 ~12:00 14:00 ~16:00 20:00	- 리브고슈 재개발사업 홍보관 (사업설명회 및 현장 확인) - 현장방문(근대 건축물 활용사례) - 정책연수 현장 토론(1회차)	기관방문 현장방문
3/29 (수)	파리 로잔 툰 인터라켄	07:53 12:00 15:00 ~17:00 20:00 21:00	- 출국(프랑스/열차) - 입국(스위스 /열차) - sonnmatt - wohnen im alter (노인복지 사례 청취 및 시설 견학) - 이동 - 정책연수 현장 토론(2회차)	LYRIA9261 기관방문 전용차
3/30 (목)	인터라켄 밀라노	09:00 15:30 18:00 21:00	- 융프라우요흐 (자연자원 관광 활용 사례) - 출·입국(스위스⇒ 이탈리아 /전용차) - 현장방문(문화유적 관광 활용) - 정책연수 현장 토론(3회차)	현장방문 현장방문
3/31 (금)	베네치아	09:00 19:00	- 현장방문(섬지역 수자원 관광자원화 활용사례) - 정책연수 현장 토론(4회차)	현장방문
4/1 (토)	피렌체	09:00 20:00	- 현장방문(전통시장 활성화 사례) - 정책연수 현장 토론(5회차)	현장방문
4/2 (일)	로마	09:00	- 현장방문(종교시설 관광자원화 활용 사례)	현장방문
4/3 (월)	로마 파리	06:00 12:00	- 출국(이탈리아/항공) - 경유(프랑스 /항공)	AF1005 AF264
4/4 (화)	인천	08:00	- 입국(한국 /항공)	AF264

IV

국가별 연수결과



3/28	프랑스	파 리	리브고슈 재개발 사업 홍보관 견학 근대 건축물 활용 사례 탐방
▼			
3/29	스위스	툰	sonnmatt - wohnen im alte 노인복지 시설 견학
▼			
3/30	스위스 이태리	인터라켄 밀라노	응프라우요흐(자연 관광 자원 활용 사례 탐방) 문화유적 관광 활용 사례 탐방
▼			
3/31 ~ 4/2	이태리	베네치아 피렌체 로 마	섬지역 수자원 관광자원화 활용 사례 탐방 전통시장 활성화 사례 탐방 종교시설 관광자원화 사례 탐방

프랑스



과거 압축공기 제조 공장 공장장의 사택이었던 프로젝트 하우스
파리 만국박람회를 위해 에펠탑을 건축한 귀스타브 에펠이 공장을 건축함

i 국가개요

- 면 적 : 67만 5,417km² (속령 포함/한반도의 약 3.1배)
- 인 구 : 약 6,781만명(2022)
- 수 도 : 파리
- 기 후 : 해양성, 대륙성, 지중해성 기후가 모두 나타남
- 시 차 : 한국보다 8시간 느림
- 주요특성
 - ▶ 유럽 서부에 위치한 프랑스공화국
 - ▶ 18개의 광역행정구역(레종)과 101개의 중역행정구역(데파르트망), 35,357개의 기초행정구역(코뮌)으로 구성되어 있음
 - ▶ 각 단위는 상하관계가 아닌 수평 관계이며, 사무 배분에 따라 국가에서 지방 행정구역으로 세원이 이양된 전례가 있음
 - ▶ 각 코뮌의 의회는 9~163명의 의원으로 구성되어 6년의 임기를 지내고, 의회의 장은 집행 기구의 책임자인 시장의 역할을 동시에 담당함
 - ▶ 중앙정부가 정부를 대표하는 ‘프레페’를 데파르트망 단위로 파견하여 지방자치의 적법성을 감독하는 역할을 맡게 함

ii 기관방문

- 기 관 명 : SEMAPA 리브고슈 재개발 사업 홍보관
- 방문일시 : 2023. 3. 28.(화) 09:30~12:00
- 기관위치 : SEMAPA 리브고슈 재개발 사업 홍보관 및 지역 일원
(Maison des Projets de SEMAPA 11 Quai Panhard et Levassor 75013 Paris)

□ 참석인원: 15명

- SEMAPA(파리개발공사) 수석건축사(Directeur de projet)
- 대한민국시도지사협의회 프랑스 사무소 담당 서기관
- 인천광역시 중구의회 의장 강후공 외 11명
- 통역사

□ 방문목적 : 도시재생 정책연수

- 홍보관 관람 및 관련 프레젠테이션 청취, 질의응답
- 리브고슈 지역 현장 견학

방문 시사점

1. 교통과 주민 생활 조화

→ 리브고슈 지역은 개발 이전 어지러이 늘어진 철로와 쓸모를 다한 각종 공장시설로 인해 낙후된 지역이었으며, 그 때문에 바로 옆 센 강변 접근성과 활용도가 극히 떨어지는 상태였다. 하지만 철도를 복개하여 인공부지를 건설하는 아이디어를 실행에 옮기며 센 강변의 접근성을 대폭 강화하였다. 또한 교통 관련 사업을 추진할 때 철로가 지나가지 않는 짧은 시간에만 공사를 한다거나, 교통 흐름을 막지 않는 공법을 적극 활용하여 시민의 불편함을 최소화하였다.



우리 구
접목방안

제물포르네상스와 연계성이 강한 제물포연안부두선, 부평연안부두선은 인천에서 처음으로 추진되는 트램(노면전차)노선 중 일부로 지역 경제 활성화, 교통난 해소, 친환경 교통수단 정착 등의 장점이 기대된다. 폐철도를 활용하는 트램 노선 위로 트램의 운행에 관계없이 주민이 이동할 수 있는 인공부지를 설치하는 것을 고려할 수 있다. 공간 활용도를 극대화함과 동시에 재개발되는 인천항 내항 접근 편의성을 제고할 수 있는 방안으로 생각된다.

2. 공공성에 집중한 도시개발

→ 25%이상의 임대주택 건설을 의무화하고 및 사업자 선정단계부터 부동산 가격을 선공개하도록 하여 투기를 방지하는 등 개발 전반에 있어 공공성을 중시하는 모습을 보였다. 또한 정치권이 변화하면서 사업의 규모가 아직도 확정된 것은 아니지만, 그러한 와중에도 통일성있는 정책 추진을 지속해나가는 현황을 알 수 있었다.



우리 구 접목방안

제물포르네상스의 성공적인 추진을 위해 인천시는 내항 일대 경제자유구역 지정을 추진하는 한편, 정부기관으로부터 항만소유권을 확보하기 위한 노력도 이어가고 있다. 공공성을 최우선 과제로 삼아야 하는 만큼 민간투자를 적극적으로 유치하는 한편 공채 발행 등을 통해 자금을 조성할 수도 있을 것이다. 전세사기 등의 투기요소를 원천 차단하고 원주민의 평온한 생활을 보장해야 할 것이다.

3. 지역주민 삶의 질 개선

→ 리브고슈 도시재생 프로젝트의 주목적 중 하나가 바로 센 강변과 리브고슈 지역 구시가지의 연결이었다. 즉, 새로 들어올 주거 공간뿐만 아니라 기존 지역의 재생까지 고려한 사업인 것이다. 또 거대한 하나의 공원을 조성하는 것이 아닌 여러 개의 소규모 공원을 조성하여 개발 지역 전역에서의 녹지 접근성 또한 확보할 수 있었다. 또한 학교 이전 및 도서관 신설, 각종 여가시설 확충 등 지역주민이 여가를 충분히 즐길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였다.



우리 구 접목방안

우리 구에도 자유공원이라는 전국적으로 자랑할 만한 공원이 있지만 고저차가 있는 원도심의 특성 상 거동이 불편한 일부 주민에게는 접근성이 결코 좋다고 할 수 없을 것이다. 이러한 견지에서 도시재생사업으로 빈집 정원화 등 소규모 공원 조성 사업 확대를 검토해볼 수 있을 것이며, 학령인구 감소추세에 대응하기 위해 아동·청소년이 배우고 즐길 수 있는 공공시설을 확충한다면 원도심 부흥에 활기를 불어넣을 수 있을 것이다.

방문 이모저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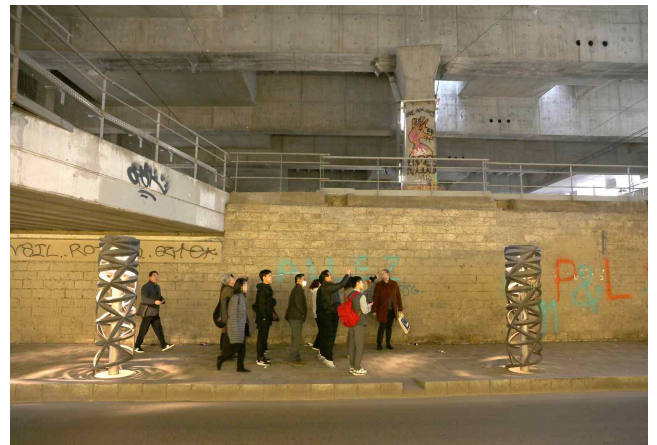
재개발 사업 홍보관 방문 기념 단체 촬영



재개발 사업 현황 프레젠테이션 청취



인공부지 상단 자전거도로와 식목, 건축물



인공부지 하단 통행로와 내부 구조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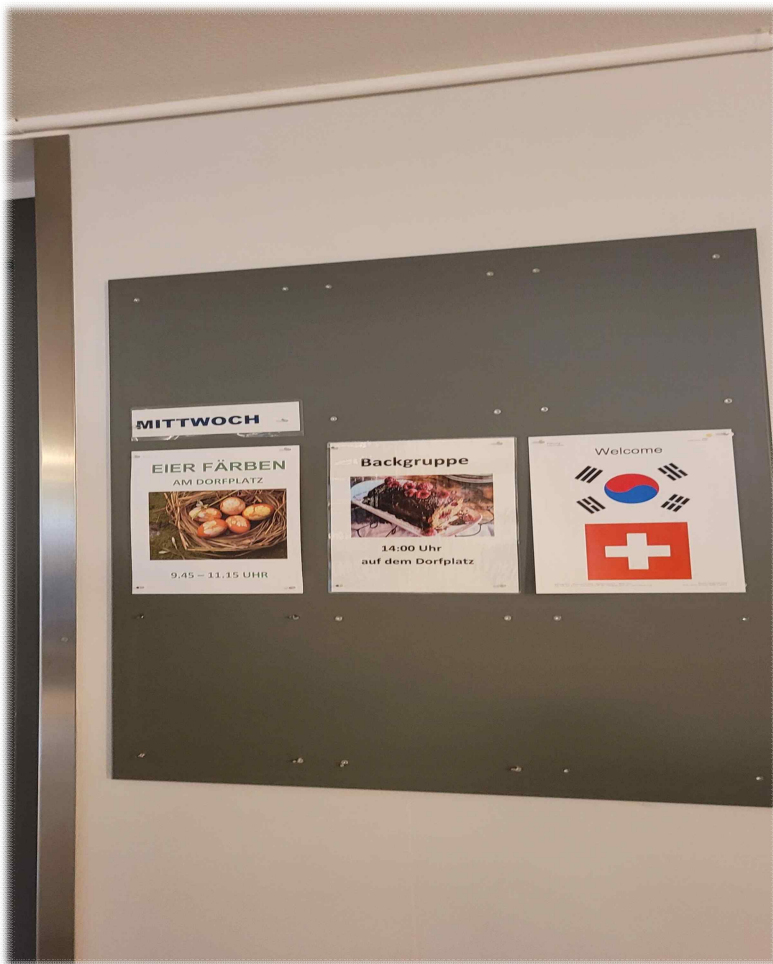


인공부지 연결 구간에 조성된 녹지와 계단 벽화



근대건축물을 활용한 창업 인큐베이터 스타시용 F

스위스



우리 연수단 방문을 환영하는 손매트요양원 게시판

i 국가개요

- 면 적 : 4만 1,285km² (한반도의 약 1/5배)
- 인 구 : 약 869만 명(2021)
- 수 도 : 베른
- 기 후 : 남부의 지중해성, 서쪽의 서안해양성, 동쪽의 대륙성기후가 서로 영향을 주고받는 점이성 기후
- 시 차 : 한국보다 8시간 느림
- 주요특성
 - ▶ 유럽 중부에 있는 스위스 연방
국가권력은 연방정부, 주정부, 시·군정부의 3단계로 분산되어 고유 업무가 위임되어있으며, 각 주 및 시·군정부는 독자적인 행정부, 의회, 법원을 구성하여 운영 중임.
 - ▶ 시·군의 20%만이 기초의회를 보유하고 있으며, 나머지 80% 시·군의 경우 기초지자체총회에서 직접민주주의 형태로 중요사항을 결정하는 독특한 자치 방식을 가짐.
 - ▶ 유서 깊은 민주주의의 전통과, 높은 교육 수준 등의 배경을 갖추고 있어 국민제안, 국민투표, 청원 등의 직접 민주정치가 활발하게 이루어짐.

ii 기관방문

- 기 관 명 : Sonnmatt-Living for the Elderly
- 방문일시 : 2023. 3. 29(수) 15:00~16:30
- 기관위치 : Sonnmattweg 7B, 3604 Thun, 스위스
- 참석인원: 14명
 - Sonnmatt-Living for the Elderly 운영관리자 (Betriebsleiter)
 - 인천광역시 중구의회 의장 강후공 의장 외 11명
 - 통역사
- 방문목적 : 노인복지 정책연수
 - 시설 관람 및 관련 프레젠테이션 청취, 질의응답

방문 시사점

1. 노인복지시설과 주민 생활 조화

→ 국내 자료 조사 중 정당한 절차를 거쳐 허가를 받았음에도 주민들의 반대로 요양원 설립에 난항을 겪은 사례를 다수 접할 수 있었다. 그러나 스위스의 경우 요양원, 장례식장, 납골당 등의 시설이 혐오시설로 취급되지 않고 오히려 일자리 창출 효과 등으로 설립을 반기는 경우가 많다고 한다. 또한 지역 주민과 함께하는 각종 행사 실시, 지역 기업과의 상생 중시 등 지역사회와 밀접한 관계를 이룬다는 점이 인상적이었다.



우리 구 접목방안

우리 구 원도심은 2023년 현재 65세 이상 인구가 전체 인구 대비 27%에 달하며 고령화가 지속되는 추세이다. 영종 지역의 경우 젊은 인구의 유입이 지속되며 중구의 평균 연령을 낮추는데 크게 일조하였지만 그에 따라 절대적으로 증가할 노인 인구에 선제적으로 대비하는 것은 매우 중요하다. 우선 요양원 설립 단계부터 지역 주민들에게 경제·문화적 기대효과를 설득하고 홍보하는 절차가 선행되어야 한다. 이에 더하여 노인 복지 시설에 주민을 초청해 다양한 행사를 진행하거나 지역단체와의 협력, 지역상품 우선구매 활성화를 통한 지역 기업과의 상생 등 지역사회와 가까워지기 위한 다양한 방안을 생각해 볼 수 있다.

2. 직원 근무환경 및 전문성

→ 우리가 방문한 요양원은 입소한 어르신의 수보다 직원의 수가 더 많았다. 심지어 대부분의 인력은 정규직이었으며, 그중에서도 절반 이상이 전일제 직원이었다. 이렇듯 충분한 인력과 해당 인력의 정규직 근무는 각 직원의 숙련도를 높이고 어르신 한 분 한 분에 대한 밀착 관리가 가능해지는 등 전체적인 시스템의 완성도를 높일 수 있는 방안으로 보였다.



우리 구 접목방안

요양원의 인력관리에 지자체에서 직접적으로 행사할 수 있는 영향력은 미비하다. 하지만 고용된 인력에 대한 전문성 강화 교육을 지원하거나, 지자체가 노인복지시설과 지역사회의 가교 역할을 수행하여 기존 인력의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노력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또 제물포 르네상스 프로젝트 중 글로벌 기업 유치를 통해 로봇, 원격 모니터링 시스템 등 첨단 기술을 우선 도입하여 현장 관리의 효율성을 향상시킬 수도 있을 것이다.

방문 이모저모



하루 3끼 모두 직접 조리하는 주방과 식당



분업을 통해 체계적으로 운영되는 세탁시설



지역주민들도 이용할 수 있는 카페테리아



아파트와 유사하게 운영되는 입주 시설



시설 운영 및 복지 정책 청취 및 질의응답



손매트 요양원 방문 기념 단체 촬영

이탈리아



물길을 사이에 두고 늘어서 있는 수상가옥 사이로
주요 교통수단인 보트가 지나가고 있다

i 국가개요

□ 면 적 : 30만 2,072km²(한반도의 약 1.5배)

□ 인 구 : 약 6,239만명(2021)

□ 수 도 : 로마

□ 기 후 : 지중해성 기후

□ 시 차 : 한국보다 8시간 느림

□ 주요특성

- ▶ 지방행정구역은 20개의 주, 92개 도, 7,982개 시로 구분되어 있으며 5개의 주는 자치권이 강화된 특별주로 관리되고 있음.
- ▶ 주, 도, 시 모두 임기 5년의 의원을 주민이 직접·보통 선거로 선출하며, 주의원만 겸직이 금지되어 있음.
- ▶ 각 주에는 중앙정부에서 파견한 조정관이 있으며, 각 주의회가 제정한 법안은 조정관의 서명을 받아야 발효할 수 있음.
- ▶ 애국심보다 애향심이 더 강한 국가로, 각 지방마다 전통의상과 전통음식이 다르고, 언어와 역사도 판이하여 민족주의로 인한 통일성이 매우 약함.

ii 현장방문

수자원 활용 지역

□ 방문일시 : 2023. 3. 31. 09:00 ~ 17:00

□ 방문장소 : 베네치아 일원 (베네치아, 이탈리아)

□ 방문목적 : 수자원 활용 사례 견학

방문 시사점

1. 전통 계승을 바탕으로 둔 혁신 수용

→ 베네치아는 역사적 가치를 지닌 문화재 뿐만 아니라 일반 주택, 다리 등 대부분의 시설이 노후되었을 때 재건축이 아닌 보수공사를 통해 외형을 유지하여 도시의 역사성을 지켰고 실제로도 중세로 돌아간 듯한 분위기를 느낄 수 있었다. 그러한 와중에도 관광이 활성화되면서 베네치아 구도심지를 오가는 인구가 증가함에 따라 이들을 수용할 수 있는 민간 수상 대중교통 기업이 자리잡는 등 다양한 산업이 새롭게 등장하였다. 또한 침몰과 홍수피해를 막기 위해 최첨단 인공 방벽을 건설하는 모세 프로젝트를 진행하는 등 전통을 해치지 않는 선에서 혁신을 적극적으로 받아들여 도시 전체 주거 및 관광의 편의성을 재고한 점이 인상깊었다.



우리 구 점목방안

천혜의 자연 관광자원을 갖춘 용유·무의지역에 대규모 건축, 토목 공사를 무차별적으로 진행하여 최신식, 현대식 시설을 설치하는 것은 오히려 자연을 즐기기 위해 방문하는 관광객들의 요구를 만족시키지 못할 가능성이 있다. 따라서 자연환경에 대한 훼손을 최소화하고, 지속 가능한 관광사업을 추진해야 한다. 이에 더불어 오버투어리즘(과잉 관광)으로 인한 부작용을 줄이기 위해 입장료를 받기 시작한 베니스처럼 용유·무의지역주민들의 거주 환경 개선을 위해 적극적인 재정운영 기반 마련 및 재투자가 필요할 것이다.

2. 타 관광지와 차별화되는 경험

→ 베네치아는 다른 어떤 관광지와도 비교할 수 없는 특색을 갖춘 도시이다. 곤돌라라는 사실상 베네치아에서만 즐길 수 있는 이동수단이자 관광자원은 물론, 방문 시기에 따라 카니발 축제, 영화제와 같은 다른 관광지에서는 경험하지 못할 행사도 진행된다. 이에 더불어 축제의 상징적 소품인 가면을 기념품화하고, 오랜 역사를 가진 플로리안 카페를 외형을 유지한 채 운영하는 등 베네치아에서만 즐길 수 있는 고유의 경험을 제공하고 있다.



우리 구 접목방안

우리 구는 관광객 유치에 많은 힘을 쏟고 있으나, 인천광역시 자체의 관광 선호도가 1.2%에 불과하는 등 관광분야의 특색있는 콘텐츠 부재에 시달리고 있다. 우리 구의 문화재야행이 좋은 반응을 얻고 있는만큼 해당 행사와 관련하여 지속가능한 콘텐츠를 개발하고, 사업을 강화하면 좋을 것이다. 또한 스마트관광도시로 선정되며 개발된 ‘인천e지’ 어플리케이션의 경우 100만회 이상 다운로드된 대한민국의 대표적인 지역 관광 어플리케이션인 ‘제주지니’에 비하면 그 성과가 미약한 편이다. 하지만 사용자로부터 좋은 평가를 받은만큼 해당 어플리케이션을 재발굴하고 콘텐츠를 더욱 확대한다면 디지털 환경에 친숙한 관광객들에게도 스마트관광이라는 신선한 경험을 제공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방문 이모저모



지역 전통 유지와 현대적 개발의 조화



경사로 설치를 통한 이동권 보장



새롭게 등장한 민간 수상 대중교통 기업



수변에서 자연스럽게 행해지는 옥외영업

전통시장

- 방문일시 : 2023. 4. 1. 14:00 ~ 15:00
- 방문장소 : 가죽 재래시장
(Via dell'Ariento, 28, 50123 Firenze FI, 이탈리아)
- 방문목적 : 전통시장 시설 활성화 사례 견학

방문 시사점

1. 역사적 건축물의 현재진행형 활용

→ 전통가죽 재래시장이 자리잡고 있는 메르카토 누오보는 16세기에 지어진 ‘로지아’ 형태의 건물로 역사가 오래된만큼 실제 규모도 신포국제시장에 비해 크다고 보기 어려웠다. 즉, 무작정 규모를 키우기보다 원래의 규모를 유지하더라도 실속있고, 특징이 명확한 ‘틈새시장’으로 소비자를 공략한 것으로 느껴졌다. 또한 주변에 자리잡은 수많은 관광지와와의 중첩을 통해 유동인구가 끊이지 않고 있어, 원래는 방문 계획이 없던 관광객도 시장을 둘러보는 경우가 많을 것 같았다.



우리 구 접목방안

현시점에서 우리 구의 인지도나 규모 등을 고려하였을 때 ‘특정 상품군만을 판매하는 상설시장’이라는 개념을 그대로 벤치마킹하기는 무리가 있을 것으로 보인다. 대신 향후 시장 내부에서 행사를 진행할 때 간이 부스 등을 설치하고 우리구의 특산물 등 특정 상품군만을 행사기간에 한하여 판매하는 등 피렌체 전통시장의 콘셉트를 소규모로 차용하여 시도해봄직하다. 더불어, 우리 구 전통시장의 활성화를 위해서는 시장 주변 관광지에 대한 홍보활동, 시설정비 등을 진행하여 관광객 유입을 늘리는 것이 매우 중요해 보인다.

2. 디자인의 통일성

→ 시장과 주변 거리를 걸으며 가장 인상깊었던 점 중 하나가 바로 지역 전체를 아우르는 통일성이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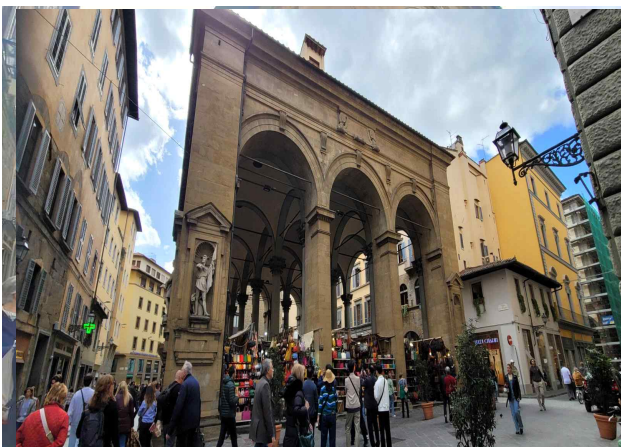
물론 정책적으로 일정 부분 강제되는 요소도 있었겠지만 가축시장 내에서도 가축과 지역 기념품 이외의 상품을 보기가 어려웠다. 심지어는 그리스 신화 속 멧돼지를 본따 만든 청동상 근처에도 관광지라면 흔히 볼 수 있는 외국어 안내문이 보이지 않았다. 인터넷을 통해 궁금한 점에 대한 자국어 정보를 원활히 습득할 수 있는 현 시대에 이러한 단순함이 ‘로컬 감성’을 자극할 수 있다는 생각이 들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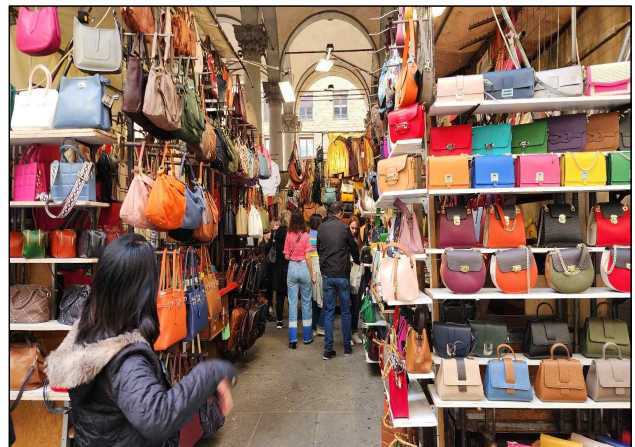
우리 구 접목방안

향후 들어설 상상플랫폼 등 기존 건축물을 활용한 행사를 진행할 때 우리구의 특산물 등 특정 상품군만을 판매하는 등 시장의 콘셉트를 벤치마킹하고, 안내 이정표, 조명 등을 단순 최신 장비를 도입하기보다 행사에 어울리는 장비를 활용하는 등의 행사 전반의 통일성과 특화성을 제고하는 방안을 생각할 수 있을 것이다. 또한 건물 외관 디자인에 우리구 분위기에 어울리는 가이드라인을 제시하고, 가이드라인을 준수했을 때 인센티브를 제시하는 등 관광특구 전체의 통일성을 제고할 수 있는 다양한 방안을 강구하면 좋을 것 같다.

방문 이모저모



수많은 유동인구가 오가는 전통시장 주변 거리



지역 특화 상품만을 판매하는 매대

종교시설

□ 방문일시 : 2023. 4. 2. 09:00 ~ 12:00

□ 방문장소 : 베드로대성당 등

(Piazza San Pietro, 00120 Città del Vaticano, 바티칸 시국)

□ 방문목적 : 종교시설 관광지화 사례 견학

방문 시사점

1. 역사적 이야기와 현재의 공존

→ 바티칸 시국 자체는 1929년 라테라노 조약으로 탄생한 국가이지만, 베드로부터 시작한 2000년에 달하는 교황의 계보와 교황령의 오랜 역사를 계승하고있다. 오늘날에도 바티칸 시국에는 교황이 거주하고 있고, 집회와 의식 등 각종 종교행사가 진행되어 많은 종교인들이 계속해서 찾는 국가이다. 휴일이었던 관계로 방문하지 못했던 바티칸 미술관 또한 교황들이 거쳐하던 곳을 개조하여 활용 중인 전시공간이며, 1973년 이후 부터는 20세기의 각종 예술품을 전시한 현대 종교 미술 컬렉션을 운영하고 있고, 성 베드로 광장에는 방문자들이 주요 장면을 볼 수 있도록 대형TV를 설치하는 등 시대의 흐름에 맞추어 끊임없이 변화하고 있다.



우리 구 접목방안

우리 구에도 개항장 역사문화순례길이 조성되어 근대 한국 종교 역사의 발자취를 따라갈 수 있는 콘텐츠가 개발되어있다. 그러한 스토리가 현재에도 이어져 간다는 분위기를 조성한다면 해당 콘텐츠가 방문객과 종교인으로부터 높은 호응을 얻을 수 있으리라 생각된다. 주기적으로 스토리텔링 마케팅에 도움이 될 종교행사, 주변 관광지와 연계 행사를 진행하여 방문객, 종교인의 참여율과 재방문율을 높이는 방안을 검토할 수 있을 것이다.

2. 방문에 대한 낮은 진입장벽

→ 바티칸 시국 일대와 베드로 대성당 내부를 둘러보며 들었던 감상 중 하나는 ‘부담이 적다’는 것이다. 무릎을 꿇고 기도하는 종교인도 많이 보였지만 가벼운 마음으로 찾아온 사람들이 많았고, 휠체어 탑승자 등 거동이 어려운 분도 베드로 대성당에 입장해 내부를 둘러볼 수 있었으며 물리적으로도 바티칸 시국을 포함한 인근 도로까지 턱이 거의 보이지 않았다. 또 출입통제시스템, 성당 입장, 화장실 이용을 모두 무료로 지원하는 등 방문객의 편의를 위해 재투자를 아끼지 않는다는 느낌을 받았다.



우리 구 접목방안

조사에 따르면 한국의 종교인구는 2004년 이후 계속해서 감소 추세를 보이고 있다. 이는 특히 20~30대에서 두드러진다. 따라서 세대 구분없이 관광객을 유치하기 위해서는 종교적 엄숙함을 강조하기 보다 문화유산으로써의 가치를 강조하고 자유롭게 드나들 수 있는 분위기를 조성하는 등 개방성을 확장하는 활동이 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든다. 또한 고령화되고 있는 종교인구의 접근성을 높이기 위해 무장애 설계를 적용하는 것도 종교 테마 관광을 활성화하는 데 많은 도움을 줄 것이다.

방문 이모저모



관광객과 종교인의 구분이 없는 인파



경사가 거의 없는 바티칸 인근 도로

정책 토론 진행 이모저모



2023. 3. 28.
프랑스 파리 도시재생정책 관련 토론



2023. 3. 29.
스위스 툰 노인복지정책 관련 토론



2023. 3. 30.
스위스, 이탈리아 관광 활성화 방안 토론



2023. 3. 31.
이탈리아 베니스 수자원 활용 방안 토론



2023. 4. 1.
이탈리아 전통 시장 활성화 방안 토론



2023. 4. 8.
보고자 결정 및 개인별 수집 자료 취합



2023. 4. 18.
개별 연수과제 취합 및 수집 자료 제공



2023. 4. 21.
분담별 연수과제 취합 및 자료 보충

A분담

원도심 도시재생 및 주민 중심도시 조성

- 팀장: 정동준 부의장
- 팀원: 이종호 운영총무위원장/ 김광호 의원



도시재생의 결의를 다지려..

A-1. 도시재생 사례를 통한 원도심 정책

리브고슈 지역 견학을 통해 원도심 유헤 철도부지를 제물포 르네상스와 연계하여 재개발하는 도시재생정책 방안 탐구

□ 작 성 자 : 정동준 부의장

□ 주요내용

▶ 현재 상황

약 30년에 걸쳐 공채로 자금을 확보하면서 자금의 압박을 받지 않고 공공자본으로 철도 복개 등을 통하여 기존 도시와 융합되는 새로운 도시 구축한 파리시와 달리 우리 인천시는 인천항 내항 1·8부두 개발 시 항만공사로부터 약 400억원의 토지를 매입하여 시공업체에 250억원이라는 천문학적 자금을 지급 보증하여 현재까지 사업을 진행하고 있다.

▶ 연수를 통해

구역별 특색에 따라 나누어 따로 사업을 진행하는 것이 아닌 특색을 살린 세심한 구조를 통한 하나의 도시 건설과 구도심과 잘 어울리는 도시경관을 살린 신도시화가 다채롭다.

▶ 느낀 점

우리의 도시재생사업도 인위적인 방법이나 공적인 방식으로만 무리하게 진행하지 않고 기존 원도심 주민들의 기대감에 호응하고, 소음에 대한 민원을 최소화하며, 공공자본으로 민간 개발업자와 함께 개발을 주도한 파리시의 국영철도 부지개발과 행정력 등 선진 사례들을 벤치마킹하여 다각적으로 검토하여 진행되기를 기대한다.

A-2. 전통시장 활성화를 위한 원도심 정책

유럽 전통시장 비교시찰을 통해 구내 전통시장 활성화 방안 탐색

□ 작 성 자 : 이종호 운영총무위원장

□ 주요내용

▶ 현재 상황

코로나19의 긴 터널을 지나 고물가, 고금리, 고환율에 인건비 상승까지 우리 전통시장 상가 자영업자들은 삼중고를 겪고 있고, 쓸쓸히 문을 닫는 경우가 증가하고 있다. 상권 활성화 측면에서 가장 눈에 띄는 점은 우리 전통시장은 특화되어 있지 않고 어디를 가나 모두 비슷비슷한 품목으로 다양한 생활용품이 집결된 만물상이다.

▶ 연수를 통해

몽마르트 언덕이나 베니스 지역, 이태리 가죽시장과 같은 유럽의 유명한 활성화된 지역은 정형화된 가게가 아닌 여러 사람이 많이 모이는 다리 주변 등 공용 유희공간 등을 이용하였고, 전통가죽 등 지역 특산 품목을 선정하여 특화하여 구매자가 쉽게 접근하여 살 수 있는 시스템으로 운영되고 있었다.

▶ 느낀 점

주민들의 생활편의 용품의 구입을 위한 기존의 전통 재래시장은 이제 대형마트에 부분적 역할을 빼앗기고 있는 추세이며, 기존의 가게와 공동시설 현대화에 많은 예산이 들어가고 있다. 그러나, 근대 건축물을 기반으로 한 관광 중구에 맞는 상품을 찾아 이를 판매할 수 있는 방식 개발과 지원 조례제정 등을 다각적으로 검토하여 정책 사업에 반영되길 제안해 본다.

A-3. 노인복지시설 운영 사례를 통한 노인복지 정책

스위스 선진 노인복지정책과 중구 노인복지정책의 비교·분석을 통한
중구 맞춤형 노인복지정책 방안 모색

□ 작 성 자 : 김광호 의원

□ 주요내용

▶ 현재 상황

우리나라는 3년 후인 2026년 초고령사회(65세 이상 인구비중 20% 이상)에 진입할 것으로 전망된다. 2021년 노인 빈곤율은 전년 38.9%보다 1.3%p 떨어진 37.6%로 통계를 집계한 이래 가장 낮은 수치지만 세계적으로는 매우 높은 수준이다. 2018년 만 66세 이상 기준 OECD 노인 빈곤율 조사에서 한국은 OECD 평균 13.1%의 세 배가 넘는 43.4%로 전체 1위에 올랐다. 현재 노인 10명 중 4명이 가난으로 고통받을 수 있다는 통계에서 보듯이 향후 초고령사회로의 진입과 노인 빈곤 문제는 해결해야만 할 과제이다.

▶ 연수를 통해

스위스 로잔에 위치한 손매트 요양원은 주거, 식사, 의료서비스 등이 잘 갖추어져 노인들이 불편함 없이 행복한 노후를 보내고 있으며, 지역 주민들과도 카페 이용, 주말 공연 행사 등 소통하며 이웃으로서 함께 공동체의 삶을 영위하고 있다. 또한 국민연금, 직장연금 등으로 부족한 부분은 국가에서 연금을 보충하는 보충연금 제도를 시행하여 비교적 안정적인 노후를 보내고 있으며, 노인복지시설 또한 기피 시설이 아닌 이웃과 어우러져 함께하는 것으로 우리 사회도 이러한 문화를 만들어 가야 하겠다는 생각이 들었다.

▶ 느낀 점

노인복지정책에 대한 제도 개선보다도 노인시설을 보다 청결하게 유지하고 노인시설을 기피시설로 생각하지 않도록 주민들의 인식을 개선 시킬 수 있는 프로그램 개발이 필요하다고 생각한다.

B분담

자연 관광자원 활용 및 문화 관광 활성화 방안 탐색

- 팀장: 한창한 도시정책위원장
- 팀원: 윤효화 의원/ 손은비 의원

베네치아의 어느 가면 상점에서..

B-1. 종교건축물을 활용한 관광테마 상품 발굴

종교적 가치를 지닌 건축물을 관광자원으로 활용한 사례 분석을 통해 원도심 개항장 일대 종교 연계 관광 테마 개발 가능성 타진

□ 작 성 자 : 한창한 도시정책위원장

□ 주요내용

▶ 현재 상황

인천의 근대문화유산이 집중되어있는 중구의 개항장은 근대시설물과 당시 중국, 일본인들이 거주했던 공간들이 잘 보존되어 있고, 인천 개항 누리길은 인천의 오래길로 불리며 중구청에서 2006년도부터 운영해온 도보관광 코스로 운영되는 등 관광테마로 발전될 가능성이 있다.

▶ 연수를 통해

많은 성당들이 수 세기 심지어 2000년 이상의 세월에도 변함없이 원래의 모습을 간직할 수 있도록 안전하게 설계되었으며 많은 불편함에도 불구하고 문화재를 아끼고 유지하고 보존하는 시민들의 선진적인 문화유산에 대한 태도도 배워야 할 점이다. 로마에서는 아무리 불편해도 주변의 역사적 유물과의 조화를 위해 희생하여 유물을 보존하는 것은 매우 경이롭다.

▶ 느낀 점

종교 문화유산에 대한 이해와 관심이 부족해 지역의 우수한 종교 문화유산의 관광자원으로의 연계가 부족했으며 지금이라도 역사·문화적 가치와 관광자원으로서 잠재력을 보유한 종교 문화유산의 특성을 잘 살려내 관광에 접목해야 한다고 생각한다.

B-2. 자연관광자원 활용 및 문화관광 활성화 정책

유럽 주요 관광지의 관광객 편의 증진 방안 분석 및 중구 관광지 적용 방안 탐색 (외국인 관광객 대응 중심)

□ 작 성 자 : 윤효화 의원

□ 주요내용

▶ 현재 상황

유럽의 관광문화 산업과 인프라를 갖춘 유럽은 세계에서 가장 인기 있는 관광지 중 하나이며, 다양한 관광산업이 발전하고 있다. 유럽은 다양한 역사적, 문화적, 천연적 매력으로 유명하다. 우리 중구의 또한 문화관광도시로서의 면모를 갖추고 최근 개항장 인근 한국 최초라는 역사성을 가진 장소 등 매력적인 국제관광지로 도약하고 있다.

▶ 연수를 통해

유럽의 관광객 편의 증진 방안 분석에 따른 중구 관광지 적용 방안으로 인천광역시 중구에서 시행하고 있는 관광계획과 앞으로의 문화정책은, 다국어 지원, 관광벨트 조성, 환승투어, 영종-월미 해상관광케이블카 운영, 모바일 서비스, 편의시설 제공 등과 1534세대인 밀레니얼세대와 Z세대, 라이프스타일을 추구하는 젊은 층, 그리고 중년세대 등 중구 관광지에 관광객 편의증진 방안 탐색중 세대별 추진방안이 필요하다.

▶ 느낀 점

원도심 월미도 연안부두와 영종도 일대의 모든 자연적 지리적 장점을 살리는 문화적 정책과 지역민의 문화 향수권을 충족하는 기획, 인천공항과 연계한 지리적 요건 활성화, 을왕노을타운, 구읍벚터, 연안부두, 미단시티, 월미도 까지 이어지는 관광벨트의 활성화등 체계적인 관광인프라 육성을 위한 정책수립이 필요하다.

B-3. 수자원 활용한 섬 관광 활성화 정책

베니스의 수자원을 활용한 관광 사례를 영종·용유지역과 인천항 내항 재개발 이후 적용 가능성 분석

□ 작 성 자 : 손은비 의원

□ 주요내용

▶ 현재 상황

현재 용유·무의 지역은 아름다운 섬이라는 지역적 특성을 살리지 못하고 “노을빛타운”과 복합리조트 등 대형개발 사업 위주로 개발이 진행되고 있어 일부는 자연경관 자연이 훼손이 심하게 진행되고 있으며, 도로 등 기반 시설이 개발 진행 속도에 따라가지 못하여 특히, 주말엔 매우 도로가 혼잡하여 관광 중구 이미지도 저하되고 있음

▶ 연수를 통해

바다를 막지 않고 제방 없이 나무를 엮어 벽을 쌓고, 거대한 나무 말뚝 위에 기단을 세우고 벽돌을 쌓아 도시를 건설한 베니스는 오래된 역사를 그대로 보존할 수 있도록 보수 차원의 공사만을 진행하고 있었으며, 구도심내에는 자동차·오토바이 등이 다닐 자동차도로가 없이 자연적 특색을 잘살린 보트와 곤돌라를 대체 이동수단으로 이용한 물길을 이용하여 베네치아 국제영화제, 까르네발레 가면무도회 등 온 섬이 자원화 되어 관광객들을 끌어모으고 있다.

▶ 느낀 점

영종지역의 아름다운 섬 무의도가 도로 혼잡으로 몸살을 앓고 있는 시점에서 도로정책을 재정비하여 회주도로 건설을 고려하여 쾌적한 바다 관광을 뒷받침할 필요가 있으며, 중구 원도심은 베니스 까르네발레 가면무도회에서 시작한 가면 제작·판매점이 관광자원화 한 처럼 “문화재 야행” 때의 전통의상 기념품 사업이 상징적이고 지속성을 갖고 연중 상권 활성화에도 기여할 수 있는 지원 방안을 모색해보아야 할 것 같다.

□ 총평(국외 정책연수를 다녀와서)	
(강후공 의장)	35
□ 도시재생 사례를 통한 원도심 정책	
(정동준 부의장)	38
□ 전통시장 활성화를 위한 원도심 정책	
(이종호 운영총무위원장)	44
□ 종교건축물을 활용한 관광테마 상품 발굴	
(한창한 도시정책위원장)	50
□ 자연관광자원 활용 및 문화관광 활성화 정책	
(윤효화 의원)	56
□ 노인복지시설 운영 사례를 통한 노인복지 정책	
(김광호 의원)	73
□ 수자원 활용한 섬 관광 활성화 정책	
(손은비 의원)	79

도시재생 • 관광활성화 • 노인복지 증진을 위한

국외 정책연수를 다녀와서



자연을 거대한 관광자원으로 활용한 인터라켄에서..



인천광역시 중구의회
의 장 강 후 공

국의 정책연수를 다녀와서

“세계는 넓고 할 일은 많다.”

저명한 기업가의 자서전이다. 좀 지난 저술이기는 하나 가슴 먹먹해 지던 한때의 감회가 새롭기도 하다.

그러나, 어제가 그랬듯이 오늘도 세상은 여전히 넓고 할 일은 많다.

인천광역시 중구의회에서는

해외 선진지 비교 시찰을 통하여 “도시재생·관광활성화, 노인복지 증진을 주제로 유럽 3개국의 정책연수를 통하여 각종 제한에 의한 구도심화, 신도시 확대 등으로 인한 구도심 노령화현상 등 신·구 도시간의 불균형이 심화되어 가고 있는 우리 구 정책을 가늠해 보고자

- 도시재생을 통한 관광활성화 성공사례에 대한 다각적 연수 실시
- 선진 노인복지 시스템 연수, 우리 구 정책에 가능한 방안 모색
- 지리적 특성을 이용하여 체계적으로 관광자원 개발한 선진 정책 습득 등 우리구 의회의 정책 제안 모티브를 구상해 보았다.

한 걸음 한 걸음 우직하게 내 걷는 길이 밝이 되듯이, 우리 중구의회 의원님들은 새로운 지역을 돌아봄으로써 중구의 발전과 구민의 행복을 위해 가야 할 길과 해야 할 일을 찾아 보고자 노력했다. 사람들은 늘 살고자 노력해 왔고 그 속에서 문제와 해법을 제시해 왔다. 그 결과로 오늘을 현실로 제시하고 있다.

알고 나면 우리는 좀더 용이하게 우리에 발전에 대한 예측을 가감할 수 있으리라. 우리가 사는 이곳, 인천 중구도 넓은 세상 중에 할 일이 참 많은 도시 임에 틀림이 없으며, 노력이 필요하리라 확신된다.

과학 기술의 발전 덕에 10여시간의 비행으로 단적으로는 로마의 네로황제의 시대로 시간여행을 할 수 있다.

콜로세움(플라비우스의 원형극장)은 기원후 70년경 건설되어 1980년에는 세계문화유산으로 등재되었으며 2000년 전의 시간을 운용하며 많은 관광객들은 시간여행을 하고 있고 주민들은 그것을 근거로 살아가고 있다.

우리에게도 어려운 역사가 남겨놓은 한 시기가 역역히 살아있는 지역에서 살고 있다. 변혁의 한 시기를 역사의 현물로 개화기의 시간 100여년 전의 도시의 양식, 문화재 등 간직하고 보존해야 할 것들이 산재해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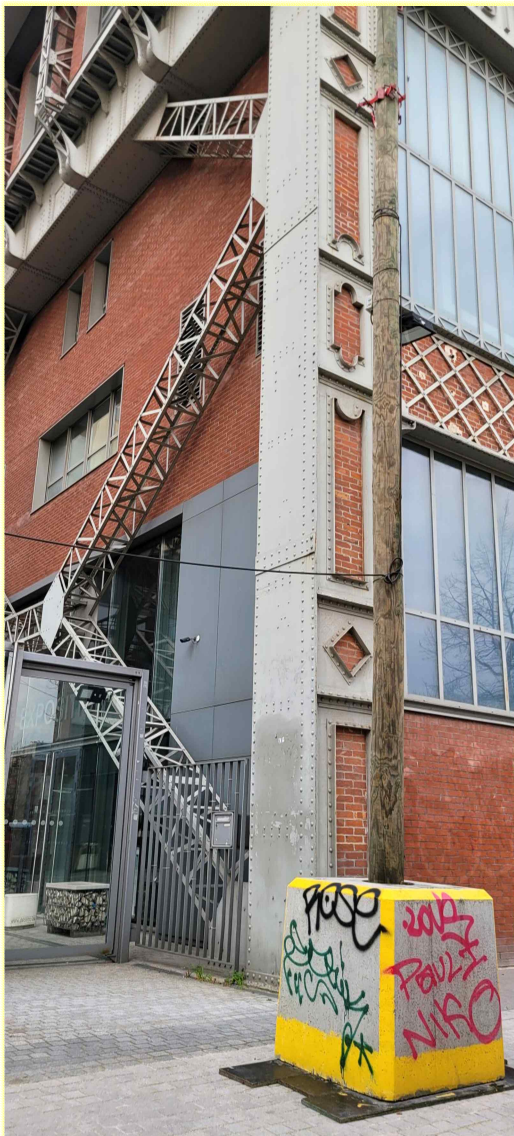
주민 삶의 고단을 덜어주는 가치의 보존 방법은 무엇이 있을까?

바쁘게 달려가는 그날의 한 장을 인천광역시중구의회 국외정책연구결과 보고서로 조금이나마 여백을 마무리해 보고자 한다.

2023. 4.

인천광역시 중구의회의장 강후공

도시재생 사례를 통한 원도심 정책



인천광역시 중구의회
부 의 장 정 동 준

친자연적 나무 가로등이 세워진 리브고슈 구도심에서..

리브고슈 견학을 통한 도시재생 정책방안

□ 견학지 상황

약 30년에 걸쳐 인공지반 지층상태로의 철도 복개 등을 통한 도시 상부에 26헥타르 (7만8650평) 면적에 새로운 도시 구축했다.

기존 도시와 다채롭게 융합되어 전체 미관/역사/상권/주거 모두의 활성화를 위한 전체적인 도시발전계획을 세워 진행했다.

지속가능발전을 기반으로 여러 건축 프로그램의 융합지구이다.

□ 연수를 통해 배운점

- 고속도로 면적 축소, 자동차 수를 줄이고 보행자/자전거 및 대중교통 장려를 위한 방안 우선시

- 미시적 도시계획설정 보다는 거시적인 계획을 통하여 점진적/순차적 계획을 잡아 건설을 시작하여 완성도 높은 인공지반 도시 구축

- 구역별 특색에 따라 나누어 따로 사업을 진행하는 것이 아닌 특색을 살린 세심한 구조를 통한 하나의 도시를 건설

- 파리 13개 구/시와 센강과의 연결성(일관성)을 중요시하여 기존 원도심 주민들의 기대감, 소음에 대한 민원 최소화와 파리의 자부심 극대화 (관광자원/상업지역 나누어 설계, 공공 계단을 통한 레벨 차이 극복, 도서관, 지하철역 등을 별도설계)

- 구도심과 전혀 어울리지 않는 개발이 아닌 구도심의 도시경관을 살린 신도시화로 인하여 차별 정책이라는 선입견이 초반 계획 단계부터 없었음

□ 느낀 점

파리시의 국영철도 부지개발과 행정력을 높이 평가하고 싶다. 파리시는 공공자본으로 개발을 주도하였고, 공채로 자금을 확보하여 민간 개발업자나 파리시도 어느 누구도 자금의 압박을 받지 않고 개발을 주도하는 것을 보고 우리 인천시가 항만 1·8부두 개발 방식을 보면서 인천시의 행정에 많은 개선이 필요하다는 생각을 하게 되었다.

인천시는 인천항 내항 1·8부두 개발 시, 인천시가 항만공사로부터 약 400억원의 토지 매입 자금을 투입하였음에도 사업자가 나타나지 않자 현 개발투자사인 무영씨엠건축사무소에 개발을 의뢰하였으나 결국은 사업비를 충당하지 못하고 부두 처리되자, 약 1년 후인 시공업 체였던 반도건설에 250억원이라는 천문학적 자금을 지급 보증을 서는 누를 범하고 있다.

인천시는 누구의 자금으로 무슨 법적 근거로 공적자금을 투입하여 사업을 완성하려 하는지 매우 의문스럽다. 정치가들이 본인들의 공만 세우려고, 무리하게 사업을 추진하는 행태를 보면서 우리 인천시는 합리적인 방안을 강구하지 못하고 반복되는 누를 범하는지 묻지 않을 수 없다.

해외 연수 시에 선진국으로 많은 배울 기회가 있음에도 인천시는 왜 눈을 감고 있는지 지금이라도 모든 도시재생사업을 인위적인 방법이나 공적인 방식으로만 하지말고 다방면의 선진 사례들을 벤치마킹하여 같은 누를 범치 않기를 기대한다.

□ 벤치마킹 및 추진해야할 점

1. 도시개발 시 추진해야하는 방향성 수립

- 기존 원도심과의 상생 가능성 및 융합계획
- 인구유출 방지 및 증가를 위한 지자체의 방향성 설정
- 관광/역사 보존, 지속가능발전 여부
- 제물포르네상스에 대한 거시적 계획 수립
- 산업 기업 유지와 유치
- 고속도로를 축소화할 때 기존 이용객 도로 정차 최소화를 위하여
기존 이용객의 대체도로 설립 후 철거를 위한 계획수립
- 단계별 진행된 “완성형” 도시발전프로젝트

2. 경인전철 지하화, 경인고속도로 지하화, 동인천역 정상화 등 구에서 추진해야할 사항

(1) 경인 고속도로 지하화

- 2027년 착공(예정) 시 기존 도로 이용객들이 우회할 수 있는 방안을 미리 설계하여 교통체증을 최소화 할 수 있는 방향 설정 및 구에서 할 수 있는 방안 모색을 해야 한다.

(2) 경인전철 지하화, 리브고슈 철도 복개사업 벤치마킹

- 철도 지하화를 중심으로 지상 활용방안은 부가적 사안으로 진행되는데 지하화의 목적은 지상 활용 및 도심개발인 것을 상기하여 우선순위를 명확히 해야 한다.
- 우선적으로 해결되어야할 것은 동인천역사 철거와 해당 부지 활성화 방안이다. 원도심에 중심지역화를 할 수 있도록 거시적 계획과 미래가치를 측정한 개발계획이 필수적으로 필요하다. 지하 4층-지상6층 규모 인천백화점은 12년째 흉물로 방치되어 있어 동인천역 정상화는 중구를 넘어 모두의 숙원 사업이며, 중·동구 주민들은 동인천 역세권 활성화를 위하여 촉구대회를 열기도 하였다.



- 리모델링 대금 등에 대한 유치권행사는 지자체에서 실질적 권한이 많이 없는 것이 사실이지만, 철도공단에서의 적극적인 추진을 돕기 위하여 지자체에서 할 일을 찾아야한다. 또한 현재 동인천역 일대 재개발은 사업성이 낮고, 미래가치측정이 어려운 것은 사실이다. 민간사업이 아닌 인천시에서 인천도시공사를 통한 공영개발을 협의하고 TF를 구성해야 하며, 송현자유시장 보상문제 등을 해결하여 손해를 일정부분 감수하여 로드맵을 그려야 한다. 구에서도 구차원에서의 대책마련이 필수적이다. 시, 인천도시공사, 국가철도공단의 원활한 사업추진을 위하여 주민의견 수집, 전달을 위해 필요성을 적극 어필해야 한다.
- 동인천 철거 후 원도심의 도시경관과 역사와 어우러지는 거시적, 전체적 계획을 잡아 활용도를 극대화해야 할 것이다.

<기타 의견> 노인복지정책 관련

스위스의 복지 시설을 관찰하고 복지시설의 책임자로부터 듣고 보고 느낀 점은 지금도 감동으로 남아있다.

우선 그들 환자와 보호자와 간호사와의 친밀함이 가장 기억에 남는다. 환자와 가족이 언제든지 함께 할 수 있으며, 차는 물론 식사도 함께 할 수 있다는 것과, 그러한 편의시설을 제공하는 고객 중심적인 정책이 우리와 좀 상반되는 듯하여 느낌이 좀 씁쓸하다.

같은 예산 같은 복지라 생각했는데, 운영의 주체에 따라 복지는 달라질 수 있다는 생각과 우리도 늙고 병들면 찾아갈 곳인데, 좋은 정책이 많이 펼쳐지길 기대하며, 몇가지 제안하고자 합니다.

1. 복지는 노인 중심이고 환자 중심이 되어야 한다.

지금의 복지정책을 보면 예산을 편성해서 집행하는 형식인데 집행 후와 사용자를 위한 철저한 관리 감독이 필요

2. 우리나라 복지에 문제점은 도심 중심으로 편중되어 있어서 사용자들이 정서적으로 상당히 피곤할 수 있다.

도심 외곽 한적한 곳에도 지자체 주도형인 시설이 좀 더 보급되었으면 하는 생각이 들었다.

전통시장 활성화를 위한 원도심 정책



고전 건축물과 어우러진 피렌체의 가족전통시장에서..



인천광역시 중구의회
운영총무위원장 이종호

- 원도심 도시재생 및 주민 중심 도시 조성 정책연수 -

(유럽 상권거리 및 골목시장 비교시찰을 통한 상권 활성화 방안 탐색)

1. 유럽의 거리 상권

- 샹제리제 거리

샹제리제 거리(Avenue des Champs-Élysées)는 파리에서만 아니라 세계적으로도 유명한 길이 2km의 대로이다. 개선문을 기준으로 뻗어 있는 12개의 방사형 길 중에 정면으로 있는 가장 큰 길이의 거리이다. 양쪽에 이름난 상점, 식당여행사가 즐비하며 화려한 거리의 노천카페가 아름다움을 더해준다. 리도쇼를 볼 수 있는 리도 극장도 이곳에 위치한다.

- 몽마르트 언덕

파리에서 가장높은 언덕으로 불리는 몽마르트 언덕은 예술가의 거리로 지금도 많은 젊은 예술가들이 모여서 초상화를 그리고, 작고 예쁜 상점들이 모여 골목 상권을 이루고 있고 많은 관광객이 찾는 명소이다.

- 베니스 (Venice)

물의 도시, 베니스는 바다로 이어지는 석호 위에 발달한 '물의 도시'로 역사 깊은 항구도시이며, 세계적으로 유명한 관광지다. 9-15C에 지중해의 상권을 장악했던 베네치아는 동서 문물의 합류 지점이었다.

영어로 베니스(Venice)라고 부르는 베네치아는 이탈리아 반도의 동쪽 끝에 위치하며, 인구가 약30만 명이다.

이탈리아 본토에서 약 4km정도 떨어져 있는 120개 정도의 작은

섬으로 이루어져 있으며 150개의 운하로 연결되어 있는 곳이다. 베네치아는 해상도시로 유명하다. 예부터 지중해 무역의 중심지로서 발전해왔으며, 동양과 서양이 함께 공존하는 도시로써 번영해 왔다.

공화국 번영시대의 모습을 그대로 간직하고 있는 베네치아는 로마, 피렌체와 더불어 가장 중요한 관광지로 명성이 높다.

- 프랑스 와인과 이탈리아 가죽

- 프랑스는 각 지역에서 나는 포도로 만들어져서 각각의 특색을 가지고 있는 유명한 와인이 많이 있으며 프랑스사람들 또한 와인에 대한 자부심이 강하다. 프랑스 보르도 와인 박물관은 최첨단 와인 박물관으로 보르도의 와인과 문화를 직접 체험할 수 있다.
- 이탈리아는 오랫동안 전 세계적으로 가죽 생산의 중심지로 로마 시대부터 오랫동안 쌓아온 품질에 대한 기술로 장인들이 가죽을 생산하고 있다. 13세기 말부터는 피렌체의 가죽 길드가 형성되었으며, 지금은 마스터 장인들이 전용 학교에서 가죽 제조에 대한 교육을 받고 있으며 특히 현장에서 고품질의 가죽을 생산할 만큼 가죽에 있어서는 특화된 상품권이 형성되었다고 볼 수 있다.

2. 벤치마킹 등 정책 방안

(1) 골목시장 등 상권거리 활성화를 위한 정책방향 도출

- 유럽 여러 방문지를 돌아보며 몽마르트 언덕이나 베니스 지역 등 상권지역처럼 현재 경기 침체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우리 구의 상권지역에 영업허가기준 등을 조례로 제정하고 해당 구역에 야간경관 조명등을 조성하는 등 상권활성화에 도움이 되는 정책을 수립할 수 있도록 진행.

○ 참고 사진



몽마르트 언덕 등 상점가 옥외에 시설물을 설치하여 영업할 수 있도록 하고 있음



베니스 등 식당 및 상점가에서 관광객 등 손님들 유치를 위해 옥외시설 설치하여 활성화 됨

(2) 특성화 상권 개발을 위한 정책방향 도출

- 방문국인 프랑스의 각종 와인과 이탈리아의 가죽 산업 등 특성화된 상권 현황을 보고 우리 구 또한 특성화된 신 상권분야의 양성 등 경제활성화를 위한 정책 도출이 필요함을 인지

○ 참고 사진



이탈리아 피렌체 가죽시장



프랑스 지역 특산 와인

3. 이번 국외시찰을 통하여 느낀 점 및 결론

코로나19로 인하여 많은 자영업자들이 매우 큰 고통을 받았다. 코로나19의 긴 터널을 지나가나 했더니 고물가, 고금리, 고환율에 인건비 상승까지 자영업자들은 삼중고를 겪고 있고, 쓸쓸히 문을 닫는 자영업자들이 증가하고 있다.

유럽 여러나라 방문지를 돌아보며 현재 경기 침체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우리 구의 상권지역을 활성화하기 위해서는 몽마르트 언덕이나 베니스 지역, 이태리 가죽시장과 같은 상권지역처럼 영업할 수 있도록 영업허가기준 등을 조례로 제정하고 해당 구역에 야간경관 조명등을 조성하는 등 상권활성화에 도움이 되는 정책을 수립할 수 있도록 노력이 필요함을 느꼈다.

유럽 여러나라의 인도 및 도로에서 파라솔을 치고 영업하는 것을 흔히 볼 수 있다. 또한 부산의 활성화된 상권을 방문해보면 양쪽 상가

중간 도로에 오후 6시부터 새벽까지 포장마차 형태의 가게를 운영한다. 지차체에서도 일자리 창출과 상권활성화를 위하여 적극 장려하기도 한다. 우리 중구에서는 법규 위반으로 불가능하다.

이번 선진지 비교시찰을 통하여 유럽선진국을 벤치마킹하고 중구가 처한 현실을 자각하고 전통시장과 재래시장, 골목상권 활성화를 위해 법을 위반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도로점용료를 한시적으로 대폭 완화하는 조례를 제정하여 차이나타운, 동화마을, 개항누리상점가, 신포국제시장, 동인천상권, 경동가구거리까지 주말에도 관광객이 북적이는 상황을 느끼고 싶다. 또한 상권활성화에 도움이 되는 정책을 꾸준히 제안하고자 한다.

종교건축물을 활용한 관광테마 상품 발굴



전세계의 수많은 사람들이 참여하여 테마상품화된 바티칸의 미사에서..



인천광역시 중구의회
도시정책위원장 **한 창 한**

I

연수 목적

- 종교적 가치를 지닌 건축물을 관광자원으로 활용한 사례 분석을 통해 인천광역시 중구의 원도심 개항장 일대를 종교적 가치와 연계하여 관광테마상품으로 개발할 수 있도록 연계

II

주요 방문지 현황

1

성베드로대성당(Basilica di San Pietro)



- ‘너는 베드로(반석)라.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고 하신 예수의 말씀대로 예수의 수제자인 베드로의 무덤 자리에 세워진 세계 최대의 성당으로, 원래는 바실리카 양식의 소박한 성당이 있었으나 교황 니콜라우스 5세가 성인의 권위에 걸맞은 성당을 건축하도록 명하여 1506년에 공사에 착공해 1626년 완공되었다.

- 르네상스와 바로크 예술의 결정이라 평가되지만, 건축 자금 마련을 위해 교회가 발행한 면죄부(免罪符)는 종교개혁의 신호탄이 되었고, 건축 자재 조달을 위해 로마 유적을 훼손하기도 했다.
- 성당 내부에서 미켈란젤로의 걸작 《피에타(Pieta)》를 감상할 수 있다.
- 성당의 앞에는 바로크양식의 거장인 베르니니(Giovanni)가 설계해 1667년 완공된 성 베드로 광장이 있다. 성 베드로 광장은 30만명 이상을 수용할 수 있으며 수많은 순례자들이 주일 정오에 교황의 축복을 받으려고 이곳에 모인다

2

두오모성당(Duomo di Milano)



- 도시 전체가 유네스코 세계문화유산으로 지정된 피렌체에서도 두오모는 대표적인 상징물이다. 정식 명칭은 산타 마리아 델 피오레 대성당으로 ‘꽃의 성모 교회’를 뜻한다. 1296년 공사를 시작하여 166년이란 긴 세월을 걸쳐 1462년에 완성되었다. 피렌체의 건축물 가운데 가장 높고 웅장하며, 세계에서 4번째로 큰 성당이다. 두오모는 로마네스크, 고딕 양식과 고대 로마의 건축 양식이 혼합된 르네상스 양식을 대표하는 건축물이다.

- 인천의 근대문화유산이 집중되어 있는 중구의 개항장은 일제강점기에 만들어진 근대시설물과 당시 중국, 일본인들이 거주했던 공간들이 잘 보존되어 있다. 인천 개항 누리길은 인천의 올레길로 불리며 중구청에서 2006년도부터 운영해온 도보관광 코스로 유명하다. 100여 년 전의 역사와 숨결을 간직한 관광코스라 할 수 있다. 인천역부터 시작해 차이나타운, 해안성당 등 시간별로 짜여지는 코스를 즐길 수 있다.
- 특히 해안성당 교육관은 서양근대 건축양식의 석조구조 형태로 개항기부터 일제강점기에 세워진 중국주택 중 국내에 얼마 남지 않아 희소성이 높은 것으로 알려져 있다. 이런 역사·문화적 가치를 고려한 적절한 활용방안을 수립하여 종교적 가치를 지닌 관광테마로 발전시켜나가는 것이 중요하다.
- 해안성당은 인천지역 최대 순교지로 제물진두에서 처형된 천주교인 10명을 기리는 제물진두 순교성지를 관할하고 있다. 한국 천주교 뿐 아니라 역사적으로도 중요한 의미를 지니는 장소이기도 하다. 종교적인 의미를 지닌 관광자원의 활성화를 위해선 천주교인 뿐만 아니라 일반시민들에게도 이러한 역사적 의미를 널리 알리는 스토리텔링이 필요하다.

- 이야기를 좋아하는 사람들의 본성 때문에 스토리텔링은 관광 마케팅에도 효율적인 방법으로 사용된다. 어떠한 사실을 있는 그대로 보여지기 보다는 사람의 감성을 자극토록 하는 스토리로 구성하여 관광 상품을 알린다면 그것을 찾고 확인하고자 하는 사람들의 요구는 많아질 것은 당연하다. 적절한 스토리텔링과 함께 역사적 건축·시설물과 장소는 잘 보존하고, 지속적으로 중구의 역사성과 함께 어우러지는 이야기를 발굴·조명하여 스토리텔링 마케팅을 전개한다면 인천중구의 관광 브랜드 가치는 한층 더 높아질 것이다.
- 선진지의 사례를 보면 많은 성당과 판테온 같은 신전 등은 수 세기 심지어 2000년 이상의 세월에도 변함없이 원래의 모습을 간직할 수 있도록 안전하게 설계되었으며 많은 불편함에도 불구하고 문화재를 아끼고 유지하고 보존하는 시민들의 선진적인 문화유산에 대한 태도도 배워야 할 점이다. 로마에서는 자신의 집도 함부로 고칠 수 없다고 한다. 아무리 불편해도 주변의 역사적 유물과의 조화를 고려하고 유적을 훼손하지 말아야 한다는 의미라고 한다.
- 종교 문화유산에 대한 이해와 관심이 부족해 지역의 우수한 종교 문화유산의 관광자원으로의 연계가 부족했으며 지금이라도 역사·문화적 가치와 관광자원으로서 잠재력을 보유한 종교 문화유산의 특성을 잘 살려내 관광에 접목한다면 지역관광 활성화는 물론 지역경제 활성화에 큰 몫을 할 것이라 생각한다.

지난 3월 5분 발언을 통해 중구 선교지 관련 관광지를 통한 발전을 발표했듯이 중구지역에 활성화 방법은 선교지의 활성화를 통한 관광 소비문화를 촉진하는 것을 추진할 것을 적극 추진하고자 하는 확신이 들었습니다. 아펜젤러 선교사의 첫 방문지의 큰 테마를 그려서 잘 기획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해외 시찰 연수로 많은 사례들을 배워왔습니다. 대한민국의 시작은 인천 중구로 통하는 역사적인 순간을 만들어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자연관광자원 활용 및 문화관광 활성화 정책



알프스의 거대한 자연을 배경으로 관광객을 끌어모으고 있는 융프라우요크에서



인천광역시 중구의회
의원 윤효화

주제 : 자연 관광자원 활용 및 문화 관광 활성화

부제 : 유럽 주요 관광지의 관광객 편의 증진 방안 분석 및 중구
관광지 적용 방안 탐색(외국인 관광객 대응 중심)

[서론]

I. 개요

1). 유럽

유럽(Europe)은 유라시아 대륙에서 우랄 산맥과 캅카스 산맥, 우랄 강, 카스피해, 흑해와 에게해의 물길을 기준으로 하여 아시아와 구분한 지역을 일컫는다. 세계에서 가장 거대한 반도이기도 하다.

유럽의 면적은 약 10,18만 제곱마일 또는 약 26,39만 제곱킬로미터이며, 한반도의 46배 수준이다.

유럽은 매우 다양한 지형과 지리적 특성을 가진 대륙으로 지구면적의 2%에 해당하는 면적이며, UN 분류에 따르면 49개의 정식 국가가 있는 수천 년 동안 다양한 문화와 역사를 가진 대륙이다.

II. 유럽 역사의 이해

1) 주요 역사적 사건과 시대별 특징

- 고대 그리스 : 유럽의 서부에 위치한 그리스는 인류 역사상 가장 중요한 문화 중 하나로 여겨진다. 그리스는 철기 시대부터 지중해 지역의 무역과 문화 교류를 주도하며, 철기 시대 후반에는 도시국가 문화가 형성되었다.

고대 그리스의 역사는 다양한 도시국가 간의 싸움과 대립, 철학, 과학, 예술 등의 분야에서의 발전으로 대표 된다.

- 로마 제국 : 로마 제국은 고대 유럽에서 가장 영향력 있는 문명 중 하나이다. 로마 제국은 753년부터 476년까지 지속되었으며, 이 기간 동안 로마는 대규모 토지 획득과 정치, 법률, 인프라 구축, 문화 등의 분야에서의 발전으로 세계적인 영향력을 끼쳤다.

- 중세 : 중세 시대는 로마제국의 붕괴 이후부터 문화와 사회적 변화의 새로운 시기를 의미한다. 이 시대는 종교적 영향력과 분열, 신분제도, 기사 정신, 성종회 등의 주요 특징을 가지고 있다. 또한, 이 시기에는 유럽 지역에서 크루세이드와 블랙 데스(흑사병) 등의 역사적 대규모 사건들이 일어났다.

- 르네상스 : 르네상스는 14세기부터 17세기에 이르는 유럽 문화의 대황금기를 의미하며, 이 시기는 과학, 예술, 철학, 문학 등 다양한 분야에서의 발전과 혁신으로 특징지어진다.

- 현대 : 유럽의 현대는 18세기부터 현재까지의 시기를 의미한다.

이 시기에는 과학기술의 발전과 산업혁명, 자유주의와 민주주의 등의 이념과 사상적 변화가 일어났으며, 제1차 세계 대전은 1914년부터 1918년까지 일어난 대규모 세계 대전으로, 유럽의 주요 국가들 간의 전쟁이었다. 이 전쟁으로 인해 수백만 명의 인명 피해가 발생하였으며, 유럽 국가들의 국경과 정치, 경제, 사회적 변화에 큰 영향을 미쳤다.

제2차 세계 대전은 1939년부터 1945년까지 일어난 대규모 세계 대전으로, 제1차 세계 대전보다 더욱 심각한 인명 피해와 파괴를 일으켰다. 이 전쟁으로 인해 나치 독일의 히틀러와 제3제국은 패배하였으며, 유럽 국가들의 국경과 정치, 경제, 사회적 변화에 큰 영향을 미쳤다.

- 유럽 연합(EU) : 유럽 연합은 1957년 로마 조약으로 시작된, 유럽 국가들 간의 경제, 정치, 사회, 문화적 통합을 추진하는 국제 조직이다. 유럽 연합은 지속적인 확장과 변화를 거쳐 현재 27개 국가가 참여하고 있으며, 유럽 내 무역, 통화, 이주, 문화 교류 등에 큰 영향을 미치고 있다

III. 유럽의 주요 관광산업 현황

1) 유럽의 관광문화 산업과 인프라

유럽은 세계에서 가장 인기 있는 관광지 중 하나이며, 다양한 관광산업이 발전하고 있다. 유럽은 다양한 역사적, 문화적, 천연적 매력으로 유명하다. 유럽의 관광산업은 크게 호텔 및 레스토랑, 여행사 및 여행업자, 교통 및 이동수단, 문화 및 유적지, 이벤트 및 엔터테인먼트, 스포츠 등으로 나눌 수 있다.

유럽의 호텔 및 레스토랑 산업은 양적인 면과 질적인 면을 모두 충족하며 발전하고 있으며, 다양한 등급의 호텔과 레스토랑이 있고, 대부분의 호텔은 고객의 요구에 따라 다양한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이외에도 에어비앤비와 같은 숙박 서비스 플랫폼이 대세로 자리 잡고 있다.

[참고 1] 에어비앤비

에어비앤비(영어: Airbnb, Inc.)는 2008년 8월 시작된 세계 최대의 숙박 공유 서비스이다. 자신의 방이나 집, 별장 등 사람이 지낼 수 있는 모든 공간을 임대할 수 있다. 2013년 기준, 192개국 3만 4800여 개 장소에 대한 숙박을 중개하고 있으며, 2초당 한 건씩 예약이 이뤄지고 있다. 2013년 1월 29일 대한민국 진출을 발표했다.^{[1][2]}

에어비앤비	
	
원어	Airbnb
산업 분야	의료관광 
시장 정보	나스닥: ABNB 
창립	2008년 8월
창립자	네이션 블레차지크 (CSO) 브라이언 चेस्क (CEO) 조 게비아 (CPO)
본사 소재지	미국 샌프란시스코
서비스	숙박중개업
매출액	▼ 33억 7,800만 달러 (2020)
순이익	▼ -45억 8,400만 달러 (2020)

아울러 여행사업 및 여행업자 산업도 유럽에서는 활발히 성장세를 보이는 추세이며, 유럽 내부에서도 다양한 여행상품이 개발되어 해외에서 유럽을 방문하는 관광객들을 위한 항공권, 호텔 숙박, 관광명소 입장권 등이 대부분 포함된 패키지 여행상품도 제공되고 있다.

유럽의 교통 및 이동수단 산업은 국가 간 이동시에도 편리하고 다양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정보와 서비스에서 다각적으로 이루어지고 있다.

교통은 항공, 철도, 버스, 택시 등 다양한 방법으로 이루어지며, 대부분의 유럽 국가들은 교통인프라가 상호 잘 연결되어 있어 하나의 유럽이라는 표현이 낯설지 않게 잘 구축되어 있다.

프랑스의 경우는 이동수단으로 자전거 대여 서비스도 많이 이용되고 있다.

[참고 2 대로변주변 자전거 대여 거치대]



유럽의 문화 및 유적지 산업은 규모와 종류가 다양하고 독보적이다. 유럽은 역사적인 건축물, 박물관, 미술관 등의 문화유산을 보유하고 있으며,

이러한 문화유산과 유적지 등의 문화적 가치와 문화 인프라 공유를 위해 매년 수많은 관광객들이 이곳을 찾고 있다.

유럽의 이벤트 및 엔터테인먼트 산업은 그 종류가 다양하고 전문적인 형태를 띠고 있다. 유럽에서는 다양한 축제와 이벤트가 열리며, 예술, 음악, 영화 등 다양한 엔터테인먼트 산업도 활성화되어 있다.

유럽의 주요 축제 중 일부는 크리스마스 마켓, 카니발, 영화제 등이다.

마지막으로, 유럽의 스포츠 산업은 축구, 농구, 테니스, 골프 등 다양한 스포츠 경기가 있으며, 이들 경기를 관람하는 스포츠 투어나 패키지 상품 또한 성황을 이루고 있다

유럽의 관광산업은 매년 많은 관광객들을 유치하며, 이는 지역 경제 발전과 일자리 창출에 큰 기여를 하고 있다.

또한, 유럽의 다양한 문화와 유산을 경험하며 다양한 산업분야에서 성장하고 있는 관광산업은 앞으로도 지속적인 발전을 이룰 것으로 예상된다.

[본론]

I. 유럽 주요 관광지의 편의 증진 방안 분석

1) 관광객 편의 증진을 위해 활용되고 있는 방안

유럽 주요 관광지에서는 다음과 같은 관광객 편의 증진 방안들이 활용되고 있다.

다국어 지원: 관광지에서는 다양한 언어로 정보를 제공하고, 다국어로 지원하는 가이드를 운영함으로써 관광객들이 불편함 없이 여행을 즐길 수 있도록 돕고 있다.

모바일 서비스: 스마트폰을 활용한 모바일 서비스를 제공함으로써 관광객들이 여행 중 필요한 정보를 언제든지 쉽게 얻을 수 있도록 지원하고 있으나 실제 사용 할때는 거의 와이파이가 터지지 않아 불편했으며, 한국에서 가져간 아이폰이 도시락을 사용해서 인터넷접속과 카톡 문자를 사용해야 했다

편의시설 제공: 공중화장실, 음료수 자판기, 무료 와이파이 등의 편의시설을 제공하여 관광객들의 불편을 최소화하는 정책적 지원에도 불구하고 관광지의 공중화장실은 카페나 식당(이용시에만 무료) 빼고 모든 화장실이 유료로 이용하여야 했으며 위생상태(화장실내 휴지통 상태)등은 불편하고 청결하지 못한 상태였다

교통편 개선: 대중교통을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지하철, 버스 등의 교통편을 활용하여 관광객들의 이동을 쉽게 할 수 있도록 돕고 있다.

유럽은 TGV, AVE, ICE, 유로스타 등 훌륭한 고속철도와 유로라인이라는 국제고속버스, 각종 저가항공이 발달했으며, 국제하천이 여러개 국가를 통과하다 보니 비엔나와 브라티슬라바 간의 경우처럼 선박을 통해 타국도시와 단시간에 닿을 수 있는 경우도 있다.

[참고 3 TGV]



특히 쉥겐조약 덕분에 국경이 개방되어 있어 이동이 용이하다. 표지판 하나로 나라가 바뀌고, 경찰이 잠깐 차 세워 신분증 확인하면 수배 중인 범 죄자가 아닌 이상 국경 이동이 프리패스다.

숙박 시설: 유럽 각지에는 호텔, 모텔, 게스트하우스, 에어비앤비 등 다양한 숙박 시설이 있어서 예산에 맞게 선택할 수 있다.

여행 비용이 많이 든다는 인식이 있고 실제로도 아주 틀린 말은 아니지만, 배낭여행의 경우 에어비앤비와 같은 카우치서핑을 적절히 이용하면 숙박비가 절약할 수 있고 호스텔이나 게스트하우스의 도미토리를 이용할 수도 있다.

[참고 4 프랑스 숙박시설]



문화 시설: 유럽에는 박물관, 미술관, 공연장, 영화관, 사적지 등 다양한 문화 시설이 있다. 이러한 문화 시설은 지역 문화의 특징을 잘 보여주어 관광객에게 매력적인 요소이다.

[참고 5 유적지-1 프랑스]



[참고 5 유적지-2 이탈리아 바티칸 성당]



[참고 5 유적지-3 스위스 융팔로우 마을전경]



음식 문화: 유럽은 각 나라마다 다양한 음식 문화가 있어서 맛있는 음식을 즐길 수 쉽게 접할 수 있으며 또한, 유럽의 많은 지역에서 와인이 생산되고 있어서 와인 투어도 인기 있는 관광루트 중 하나이다.

휴양 시설: 유럽에는 해외여행에서 휴식을 취할 수 있는 휴양지도 많이 있으며, 해변, 산악지대, 스파 등 다양한 휴양 시설을 제공하고 있다.

관광 안내 서비스: 유럽은 관광객을 위한 안내 서비스가 잘 구축되어 있다. 영어를 비롯한 다양한 언어를 구사하는 안내원과 지도, 안내 책자 등을 제공하여 관광객이 여행을 더욱 즐길 수 있도록 도와주고 있으며, 인포메이션 창구를 관광지 곳곳에서 쉽게 발견 할 수 있다.

관광 정보 제공: 유럽 각 국가별로 관광 정보를 제공하는 공식 홈페이지나 앱이 운영되고 있고, 관광객들은 여행 전에 미리 정보를 검색하여 여행 계획을 세울 수 있다.

관광 버스: 유럽의 대도시에서는 관광 버스가 운행되고 있으며, 관광객들은 투어 버스를 이용하여 각종 명소를 둘러 보는 것에 불편함이 없다. 특히 스위스는 트램이 시내 곳곳에 활성화 되어 있어 타교통수단과의 연결성이 뛰어나다

[참고 6 스위스 트램]



관광 안전 시설: 유럽은 관광객의 안전을 위해 다양한 시설을 갖추고 있다. CCTV 카메라, 경찰, 구급차 등이 대기하고 있어 긴급 상황에 쉽게 대응할 수 있도록 되어있다.

지속 가능한 관광: 유럽은 지속 가능한 관광을 위한 노력을 하고 있다. 관광객들에게 환경 보호, 지역 문화 보호, 지역 사회 지원 등 다양한 방법으로 지속 가능한 관광을 제공하는데 총력을 기하고 있다.

무장애 여행 시설: 유럽은 무장애 여행을 위한 시설을 갖추고 있다. 장애인을 위한 편의 시설, 접근성 좋은 교통 수단 등을 제공하여 모든 관광객들과 장애인들이 여행을 즐길 수 있도록 돕고 있다.

이러한 다양한 관광문화 인프라 구축은 유럽이 세계적인 관광 명소로 자리 잡는 것에 확실한 시너지 효과를 보이고 있다.

[결론]

I. 유럽의 관광객 편의 증진 방안 분석에 따른 중구 관광지 적용 방안

1) 인천광역시 중구에서 시행하고 있는 관광계획과 앞으로의 문화정책

위에서 분석한 유럽 주요 관광지의 관광객 편의 증진 방안 중, 인천광역시 중구에 적용할 수 있는 방안은 다음과 같이 제시한다.

다국어 지원: 현재 중구에서 시행하고 있는 관광객들을 위한 단순한 다국어 정보판과 다국어 가이드 서비스를 도착지인 인천공항에서부터 을왕리, 구읍벳터, 연안부두 월미도 까지 연결 관광벨트로 이어진 모든 곳에서 동시, 확대 제공하여 관광객들이 어느 곳에 머물다 가던 불편함 없이 일괄 인포메이션 받을 수 있는 관광서비스 환경조성으로 관광을 즐길 수 있도록 하며, 관광정책을 더욱 체계적으로 활성화 하여 일시적이 아닌 언제 어디서 누구에게나 양질의 관광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합리적 운영을 해야 할 것이다.

관광벨트 조성: 또한, 인천공항과 관광지를 연결하는 대중교통편 개선을 통해, 관광객들이 쉽게 인천광역시 중구의 관광지를 이용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인천국제공항공사는 코로나19 사태로 중단됐던 인천공항 환승투어를 올해부터 다시 시작했다고 2023년 1월 5일 밝혔다.

환승투어는 인천공항을 경유해 제3국으로 항공기를 갈아타는 환승 대기시간에 전문가이드의 인솔 아래 왕복 투어버스를 타고 무료로 한국 관광지를 둘러볼 수 있는 서비스로 관광자가 입장료와 체험료 등을 부담해야 하는 시스템으로 환승투어는 2004년 시작돼 코로나19 이전까지 66만명이 이용했으며, 2019년에만 8만1000명이 이용했다.

[참고 6 프랑스 트램]



올해 시작되는 환승투어는 연중무휴로 운영될 예정이며 총 7코스로 운영된다고 하니 인천 중구 관광 인프라와 연결한 시너지 효과를 상승시킬수 있도록 월미도에서 연안부도로 연결되는 트램 개설과, 영종-월미 해상관광 케이블카의 설치 운영으로 새로운 코스개발과 함께 장기적 관광계획의 실현효과를 위한 프로젝트를 완성해야 할 것이다.

[참고 7 스위스 관광케이블카]



영종-월미 해상관광케이블카는 국내에서 운영중인 5개 해상관광케이블카 여수해상케이블카, 부산송도케이블카, 삼척해상케이블카, 사천바다케이블카, 목포해상케이블카 그 어느곳과 비교하여도 입지나 주변여건이 미흡하다 할 수 없고 서울 근교 서해안 해상케이블카는 월미-영종이 유일한 관광케이블카로서의 관광객 유치나 문화인프라에 큰 영향을 미칠 것이기 때문이다.

모바일 서비스: IT강국인 이점을 활용하여 인천공항 도착시부터 중구 어느 지역을 가더라도 연결성이 멈추지 않는 와이파이, 모바일 애플리케이션을 해외에서 이용하는 와이파이 도시락의 형태처럼 쉽고 사용하기 편리한 와이파이 제공과, 관광객들이 필요한 정보를 쉽게 얻을 수 있도록 인터넷, 모바일 애플리케이션의 보급과 확장으로 인천 중구에서의 모든 서비스에 연결성을 두어야 하며 인터넷, 모바일 애플리케이션을 통해 관광객들이 식당 예약, 투어 예약, 숙박시설 예약 등의 서비스를 쉽게 이용할 수 있도록 문화콘텐츠 영역확대가 필요하다.

편의시설 제공: 관광지에서 쉽게 접하는 기반시설에서의 편의시설 제공은 공중화장실, 다국어로된 음료수 자판기, 여행쉼터 등의 편의시설을 제공하여 관광객들이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지속적 관리 유지에 중점을 두어야 할 것이다.

유럽 주요 관광지의 편의시설 중 공중 화장실 사정은 불쾌하고 낯뜨거울 때가 종종 있었다.

유럽은 높은 생활 수준에 비해서 기이할 정도로 화장실이 열악하고 이걸 당연하게 여기는지 딱히 개선하려는 의지조차 없어 보였다. 공중 화장실의 수 자체가 매우 적은 데다, 그나마 있어도 좁고 냄새나는 경우가 흔하며, 심지어 상당수가 유료여서 사용할 때 마다 1유로씩 냈던 기억이 있다.

패스트푸드점에 딸린 화장실은 잘 관리되어 있고 무료이지만, 그만큼 화장실을 이용하려는 이들로 복잡하고 붐비기 일쑤였다.

어느 곳에 가든 무료이고, 깨끗하고 편리하며 아기와 함께 방문시 남녀 누구나 사용가능한 아기 돌봄방이 설치되어 있는 공중화장실의 확보와 유지는 관광인프라의 기본요소인 동시에 선진 관광지이미지 확보에 큰 역할을 할 것이기 때문이다.

해외 관광객 대응: 해외 관광객을 대상으로 한 해외 카운터를 육성 활용하여 폐키지나 단체 단광이 아닌 개인별 관광객들에게도 그 적용 범위를 확대하여 해외 관광객들이 언어와 문화적인 장벽을 느끼지 않고 여행을 즐길 수 있도록 문화적 정책수립을 확립하여야 한다.

치안 환경: 안심 편안 밝은 거리 조성으로 관광객이 힐링할 수 있는 환경조성
유럽 주요 도시의 치안 환경은 열악하고 불안했다.

한국은 카페에서 값비싼 전자제품을 자리에 놔두고 불일을 보고와도 대부분 별 문제가 없을 정도로 치안이 좋은 나라에 속하지만,

반면 유럽은 상당수가 선진국이라고 해도 총기, 마약 등의 문제에서 자유롭지 못하고, 특히 개도국 발 이민자나 난민, 집시 등의 저소득 계층이 범죄를 저지르는 경우가 굉장히 많고 백인 우월주의 적 성향이 아직도 잔존해서 한국인 같은 비백인계 유색인종들에게 인종차별이나 갯 콜링, 헌팅 등 성범죄가 있어서 위협적이고 치안이 불안했다.

중구 어디를 다니더라도 보호받고 안전하다는 인식을 할 수 있도록 관광지 주변, 대중교통 역 주변, 사람들이 동시에 붐비는 곳 등에 밝은 조명으로 환한 거리, 안전한 거리, 깨끗한 주변환경, 친절한 안내인, 순찰 등을 강화 할 필요가 있다.

2)중구 관광지에 관광객 편의증진 방안 탐색중 세대별 추진방안

가. 1534세대인 밀레니얼세대와 Z세대는 자신의 소신과 가치를 반영하는 체험형 여행을 추구하고 인플루언셜 정보를 중심으로 취향중심의 모임을 추구할 것으로 정리된다.

관광의 개념을 자기만족과 새로운 여행지 탐색, 현지문화의 직접적인 경험에 역점을 두도 중요하게 여기고 있다. 그리고 통계로만 보면 1534세대 관광마케팅을 위해서는 실제 체험내용을 보여주는 인플루언서의 소개전략이 효과적일 것으로 보이지만 광고 형 소개는 오히려 배척받고 친구와 동료의 추천에 더 주목한다는 것도 주의해야한다

때문에 이들을 목표고객으로 선정할 때는 인구통계적인 구분보다 각각의 특별한 취향을 찾는 것이 더 적절한 방법이다.

이들의 감각추구 성향은 다양하고 신기하며 복잡하고 강렬한 감각과 경험을 추구한다.

또한 그러한 경험을 위해 신체적, 사회적, 법적, 재정적 위험을 기꺼이 감수하려하기 때문에 영종도에서 추진되고 있는 한상드림랜드 건설과 인스파이어 복합리조트 건설은 시기에 적절한 관광개발 계획이라 할 것이다

나. 라이프스타일을 추구하는 젊은 층은 낭만주의 성향, 자가지행 성향 등 극적인 관광행위와 관련되지만 마케팅에서는 각 특질에 맞는 전략을 고려해야한다

관광 상품 개발, 관광지개발, 시장세분화, 유통, 프로모션전략 등 관광마케팅에 관련된 정보를 제공하여 정보이입이 빠르고 정확하게 전달되어야 하며, 관광지에서의 다양한 활동과 쾌락적 경험, 감정적·상징적 경험을 추구할 수 있게 하여야한다

다. 중년세대는 관광명소 선택, 직관적이며 체험적인 경험을 중시하는 형태임으로 남녀역할의 변화, 건강과 웰빙, 노년활동 증가, 가족과 자아중심, 시간압박과 가치지향 등 라이프 스타일의 변화에 따라 관광마케팅에서의 전략 변화가 필요하다.

3) 총괄

웰빙 및 힐링 욕구증대, 주5일제 정착 등에 따라 해양레저·관광활동 수요가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는 상황이다.

경관감상, 해수욕, 낚시 등 전통적 활동에서 스킨스쿠버, 요트·보트, 크루즈 등 다양화되고 있는 추세에 맞는 대응이 필요할 것이며, 을왕마리나요트장의 시설보충 확대와 지속적인 활성화가 필요할 것이며, 구읍벚터의 주차장 확보와 공원 확대로 힐링을 원하는 관광객의 욕구를 충족해야 하며, 미단시티 예단포의 빠른 정비로 지역 간 활성화 불균형을 해소해야 하며, 부산 영도다리 아래 공간을 활용한 캠핑장 운영 등을 벤치마킹한 미단시티 나대지에 오토캠핑장 운영 등의 다양한 문화콘텐츠 등 정책적 연구가 필요하다고 보며, 획기적인 개발계획인 을왕 노을타운의 빠른 시공으로 선착장과 레저 관광 지역민의 경제 활성화를 촉진하여야 할 것이다.

이번 국외 선진지 비교시찰을 통해

해양레저스포츠의 국민적 저변 확대와 함께 산업적 측면에서 경쟁력 강화가 필요함으로 해양의 이점을 가진 원 도심 월미도 연안부두 와 영종도 일대의 모든 자연적 지리적 장점을 살리는 중·장기적인 안목으로 지역 문화 활성화를 통한 지역발전을 도모할 수 있는 문화적 정책과 지역민의 문화 향수 권을 확충하여 주민과 관광객 모두를 포용하는 기획이 필요한 시점임을 깊이 느끼며.

관광 상품은 고용유발효과가 크고 문화·의료 등과 융·복합이 활발하여 지역주민의 삶의 질 향상과 창조경제의 핵심동력으로 부각시킬 정책적 연구뿐만 아니라 인천공항과 연계한 지리적 요건 활성화와 을왕노을타운, 구읍벳터, 연안부두, 미단시티, 월미도 까지 이어지는 관광벨트의 활성화를 위한 체계적인 관광인프라 육성이 필요함으로 빠른 정책수립과 합리적인 시정운영을 위한 의원 연구 단체를 통한 정책연구를 심도 있게 시행하여야 할 것이다.

노인복지시설 운영 사례를 통한 노인복지 정책



인천광역시 중구의회
의 원 김 광 호

순매트 노인요양원의 식당에서

1. 연수개요

- 연수기간 : 2023. 3. 27.(월) ~ 4. 4.(화)(7박 9일)
- 연수지역 : 3개국(프랑스, 스위스, 이탈리아)
- 연수인원 : 12명(의원 7, 직원 5)

1) 연수목적

- 스위스 로잔 손매트(Sonnstatt)요양원의 노인시설에 대한 선진지 견학을 통해 우수한 노인복지정책에 대한 사례를 조사·분석한다.
- 스위스와 중국의 노인복지정책을 비교·분석하여 우리 구에 적용 가능한 맞춤형 노인복지정책 방안을 강구한다.

2) 연수 주요내용(스위스)

- 우리나라는 2020년 8월 고령사회(65세 이상 인구비중 14% 이상)에 진입한 후 앞으로 3년 후인 2026년이 되면 초고령사회(65세 이상 인구비중 20% 이상)에 진입할 것으로 전망된다. 통계청 국가통계포털에 따르면 노인 10명 중 4명이 가난한 상태에 처해 있다. 2021년 노인 빈곤율은 37.6%로 조사됐다. 이는 전년 38.9%보다 1.3%p 떨어진 수치다. 통계를 집계한 이래 노인 빈곤율이 가장 낮은 수치지만 세계적으로는 매우 높은 수준이다. 2018년 만 66세 이상 기준 OECD 노인 빈곤율 조사에서 한국은 43.4%로 전체 1위에 올랐다. OECD 평균 13.1%의 세배가 넘는다.
- 노인복지시설이 비교적 잘 갖춰진 스위스 로잔 손매트(Sonnstatt) 요양원은 1968년 개원하여 올해로 창립 55주년을 맞이하였다. 아파트 26개동에 사무실 및 간호 서비스를 받을 수 있는 89개의 방이 갖춰져 있으며, 전문 완화 치료를 위한 아주 특별한 형태(호스피스)의 아파트 3개 동이 있다.
- 135명의 직원 중 정규직이 82명으로 이중 58명은 간호, 식당, 세탁 등을 담당하고 24명은 허드레일 등을 담당하고 있다.

- 어르신들은 보통 1인 1실을 사용하지만, 부부인 경우 2인 1실을 사용하는 경우도 있다.
- 사용요금은 1인실의 경우 약 5,000스위스프랑/인당, 2인실의 경우 약 2,700스위스프랑/인당 이다.
- 연령제한은 정년퇴직한 만65세 이상이나, 죽음을 앞둔 사람이 이용할 수 있으며 평균나이는 82세다.
- 3교대 3팀 즉 9개팀을 운영하고 있으며 간호사 1명이 2명의 노인을 케어하고 있다.

2. 연수국가(스위스) 일반현황

1) 국명 : 스위스 연방

(Confoederatio Helvetica : Swiss Confederation)

2) 수도 : 베른시(市)(Bern, 14.3만명)

3) 인구 : 8,738,791명(2021)

4) 면적 : 41,293km²(한반도의 약 1/5)

5) 언어 : 독어(62.6%), 불어(22.9%), 이탈리아어(8.2%), 로망슈어(0.5%)

6) 주요도시

취리히시(市)(Zürich, 43.6만명), 제네바시(市)(Geneva, 20만명),
바젤(Baselstadt주(州)/시(市), 20만명), 로잔시(市)(Lausanne,
14.7만명), 루체른시(市)(Luzern, 8.2만명)

7) 1인당 명목 GDP : 93,719 미불(2021년)

3. 스위스 노인복지내용

1) 스위스 내 방문 돌봄 서비스인 재가서비스(Spitex)의 이용자가 증가하는 것에 대해, 해당 변화를 체감하는지와 기관에서 생각하는 원인은 무엇인가?

- 2006년 이후 2021년 처음으로 요양원 입원율이 감소하였으며, 자택에서 간호받는 것이 5% 증가하였다. 자택에서 재가서비스 받는 것을 선호하는 이유는 자율성(독립성), 개성에 대한 요구가 증가하였기 때문이다.

- 스위스의 노인 전략 정책은 재가서비스(Spitex, 홈케어, 자가방문서비스)의 의료 비용이 요양원보다 저렴하기 때문에 이를 선호한다. 또한 요양원은 한정돼 있고 지역별로 할당 및 분할되며 당국의 승인을 받아야 하므로 대기시간이 길기 때문에 재가서비스를 선호한다.
- 재가서비스(Spitex) 이용 시 의사들이 1주일에 2번 자택을 방문하여 진료를 실시한다.
- 2018년부터 2050년 사이 65세 이상 인구는 약 70% 증가할 것으로 예상하며, 현재 스위스에서 노인돌봄을 필요로 하는 노인 인구는 점점 증가하고 있다.

2-1) 코로나가 유행했을 때 한국의 노인복지시설은 많은 어려움을 겪었다. 코로나 당시 기관 자체적으로 실행했던 조치는 무엇인가?

- 팬데믹 초기 약 3개월간 요양원 방문 및 면회 금지
- 마스크 착용 의무화, 식사 시 거리두기, 주기적으로 PCR 검사, 코로나 양성 반응 시 방문금지, 간호사 방호복 입고 간호
- 2021년 1월부터 요양원 내에서 코로나 접종

2-2) 코로나 유행 시 국가와 지자체에서 지원한 내용은 무엇인가?

- 많은 지침과 권장사항 하달
- 2020년 말까지 코로나 초기에는 정부지원이 없었음
- 2021년부터 정부에서 재정지원(수행된 테스트당 2.50스위스프랑, 수행된 예방접종당 14.50스위스프랑)
- 요양원은 연간 약 180,000스위스프랑의 추가 비용을 부담함

3) 스위스는 노인을 위한 최고의 복지시스템을 갖춘 나라입니다. 저소득층 노인들도 요양시설을 이용할 수 있나?

- 대부분의 요양원은 소득에 관계없이 누구나 이용할 수 있다. 재산이나 수입이 요양원을 이용하는 조건이 아니다.

- 간병이 필요한 사람들의 약 40%가 연금비용을 스스로 조달할 수 있다(AHV 및 BVG 연금, 기타 소득, 자산 고갈)
- 간병이 필요한 사람의 약 60%가 연금비용을 충당하기 위해 보충보험 및 지자체 도움에 의존한다.

1층	2층	3층
국민연금	직장연금(의무연금)	개인연금(자유연금, 민간 제공)
AHV : 노령 및 생존자 보험 IV : 장애 보험	BVG : 직업 연금에 관한 연방법	3A : 종신�형 연금 플랜
EL : 보충연금	UVG : 사고 보험에 관한 연방법	3B : 무료 제공
기본적인 생활수준의 보장	평소 생활수준의 유지	자신의 필요에 따라 추가적으로 가입

- 스위스 연금구조(3층 구조)

※ EL(보충연금) Kasse : 2021년에는 연금 수급자의 12.5%, 즉 인구 870만명 중 총 345,000명이 보충연금을 받음

- 국민연금과 직장연금이 부족한 사람은 EL(보충연금)으로 지원해 준다. 1인당 15,600스위스프랑으로 전체 540만 스위스프랑을 지원해 준다. 즉, 1년에 42만 스위스프랑보다 적으면 보충연금을 지급한다.

4) 한국에서는 일부 지역주민들이 노인복지시설에 대해 부정적인 시각을 갖는 경우가 있다. 귀 기관은 지역주민과의 상생을 중요하게 여기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데, 이 점이 노인복지시설의 지속가능성을 높이는데 도움이 되나?

- 스위스에서는 요양시설, 장례식장 등 노인 공공시설을 기본적으로 기피시설로 보지 않는다.
- 이웃 주민들과 함께 참여하는 다양한 행사를 실시한다. 시내의 모든 요양원과 함께 ‘대민 홍보의 날’을 실시하는데, 이날은 요양원을 개방한다. 수시로 이웃 주민들을 초대하여 콘서트, 간식, 식사 등을 제공한다.

이웃 주민들이 요양원 카페테리아에서 시내보다 훨씬 저렴한 가격으로 점심을 먹을 수 있도록 ‘오픈 런치 테이블’을 실시한다.

- 참고적으로 2년 후에는 손매트요양원 리모델링을 실시하는데 이웃 주민들에게 ‘리모델링 설명회 행사’를 진행한다.

5) 기타

- 요양원은 공공기관으로 시정부와 업무담당기구가 공동으로 운영하며, 원장도 공무원이다.
- 지역에 요양원이 들어오면 지역 일자리 창출, 콘서트 등 음악회를 무료로 관람할 수 있으므로 지역 주민들은 오히려 노인관련 공공시설이 들어오는 것을 환영한다.
- 한국에는 요양병원이 많이 있지만 스위스에는 요양병원이 거의 없다. 왜냐하면 요양원에서 일반 노인과 중증 노인을 모두 케어할 수 있도록 구성되어 있다.

4. 맺음말

우리나라의 노인복지시설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마을마다 ‘노인정’이 있고 스위스의 Spitex와 유사한 제도로 장애등급에 따라 비용이 달라지는 ‘재가서비스’가 있는데 1일 3시간 이용할 수 있고 ‘주간보호센터’는 1일 8시간을 시설에서 서비스를 받을 수 있다. 그리고 스위스의 요양원과 유사한 ‘요양원’과 ‘요양병원’이 있다.

차이점은 스위스의 요양원은 방, 식당, 정원, 카페테리아 등이 깨끗하고 아늑하며 편안한 시설로 노인들이 시설에 들어가는 것을 당연하게 생각하고 행복해 한다는 점이다. 또한 지역 주민들도 이러한 노인시설을 기피시설로 인식하지 않고 지역을 위해 유익한 시설로 인식한다는 점이다.

따라서, 우리나라도 노인복지정책에 대한 제도 개선보다도 노인시설을 보다 청결하게 유지하고 노인시설을 기피시설로 생각하지 않도록 주민들의 인식을 개선 시킬 수 있는 프로그램 개발이 필요하다고 생각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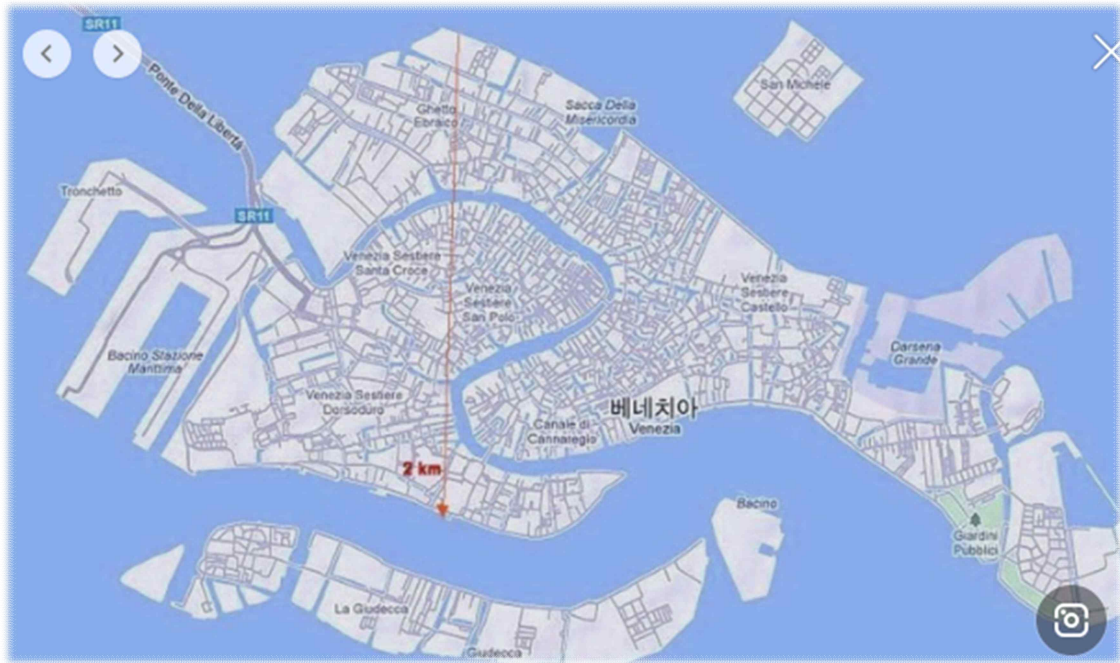
수자원 활용한 섬 관광 활성화 정책



인천광역시 중구의회
의원 손은비

수로를 따라 늘어난 베니스의 상가와 곤돌라

베니스 수자원을 활용한 관광 사례를 영종, 용유 지역과 내항 재개발 이후 적용 가능성 분석



(사진) 베니스(베네치아)지도

1. 베니스 현지 정보 및 정책방향

- ‘물의 도시’라고 불리는 베니스(베네치아)는 121개의 작은 인공섬이 400개의 다리로 이어져있다.
- 구도심 전체 수로가 뚫려 배를 타고 다니며 자동차도로가 없으며, 오토바이와 자전거도 벌금의 대상이다. 배를 통해 짐을 옮길 수 있도록 1층은 창고, 2층은 오피스, 3층을 거주공간으로 사용한다.
- 물에 잠길 수 있다는 위기에 대한 대책으로 시당국에서는 모세프로젝트라는 이름의 정책을 시행하고 있다.
- (지도) 아래에 가로로 길게 존재하는 ‘Giudecca’가 방파제 역할을 한다.
- 수송관으로 연결된 다리로 육지로 차와 짐들을 이송한다.
- 까르네발레 가면무도회, 베니스(베네치아)국제영화제, 기념품사업, 축제기간 상권활성화 및 이벤트 등으로 도시 전체 분위기 변화가 이루어지는 성공적인 축제의 대표사례이다.

2. 벤치마킹하여 추진해야할 사업 (요약)

- 용유,무의지역 “지속가능발전 관광사업 방향 설정”
- 무의도 도로혼잡 대책, 도로정책 재정비 및 회주도로 건설
- 까르네발레 가면무도회 벤치마킹, 문화재야행 “상징성 심볼 및 랜드마크 구축”
- 침수피해 한정적 예방사업이 아닌 전체적인 침수예방 프로젝트 필요
- 베네치아 국제영화제 벤치마킹, “디아스포라영화제” 발전방안 모색

3. 세부 내용

(1) 용유,무의 지역 “지속가능발전 관광사업 방향 설정”

- 베니스는 바다를 막아 담수화하여 매립하는 일반적 간척과는 달리 제방 없이 나무를 엮어 벽을 쌓고 거대한 나무 말뚝위에 기단을 세우고 벽돌을 쌓아 도시를 건설하기 시작했고, 여러 세기를 통해 증축과 함께 역사와 문화가 자리 잡은 관광도시가 되었다.
- 인공섬이지만 오래된 역사를 그대로 보존할 수 있도록 보수차원의 공사를 진행하여 성당, 미술관, 교도소 등의 관광지 뿐만 아니라 자연스러운 다리, 뱃길 등의 모든 도시가 관광자원이 된다.
- 용유, 무의 지역 발전의 희망이 되는 대형 리조트와 노을빛타운 등 대형 개발사업을 계획 중이지만 지역의 특색을 살릴 수 있는 컨셉 방향이 불명확하며, 자연훼손에 대한 염려가 있어, 자연과 바다가 아름다운 지역의 장점을 최대한 살릴 수 있는 방향설정이 되어야 한다. 무조건 좋은 시설이 들어온다면 바다를 보러 방문하는 관광지의 장점을 잃을 수 있다.

- 중구에서는 용유, 무의 지역 관광사업 추진 시 자연훼손 최소화, 시설이나 건물 철거 자제 및 보수 등의 지속가능발전 관광사업 방향을 설정하여 자연친화적인 관광지의 특색을 살릴 수 있는 방안을 수립해야 한다.

(2) 무의도 도로혼잡 대책, 도로정책 재정비 및 회주도로 건설

- 베니스 구도심 내에는 자동차도로가 없으며 자동차, 오토바이, 자전거가 다니지 않고 대체이동수단으로 보트와 곤돌라를 이용한다. 자동차로 운송할 수 있는 곳은 외부로 한정되어 있으며, 구도심 내에서는 벌금을 부과하는 등 철저히 통제하고, 대체수단의 길과 정류장을 명확히 확보하여 불편이 없도록 체제를 구축하였다.
- 무의대교 개통 후 무의도의 관광활성화에 큰 역할을 하고 있지만 연결도로만 생겼을 뿐 배를 타고 이용하여 다닐 때와 같은 내부 도로 상황 때문에 교통체증이 심각하다. 입구를 만들어 차를 타고 들어가는 것만 가능할 뿐 내부에서 차를 타고 이동할 수 있는 체계가 잡히지 않았으며 대체이동수단 또한 존재하지 않는다.
- 내부에 회주도로를 건설하여 무의도 전체를 한바퀴 돌 수 있도록 하되, 관광객이 많이 붐비는 관광지 내에는 차량 통제 및 대체 이동수단을 이용할 수 있도록 하고, 중구 자체에서 도로정책이 재정비되어야 한다.

(3) 까르네발레 가면무도회 벤치마킹, 문화재야행 “상징성 심볼 및 랜드마크 구축”

- 까르네발레 가면무도회 축제기간과 겹치진 않았지만 곳곳에 가면제작, 판매점과 노상에 작은가면 기념품 판매점이 이탈리아 전역에 존재할 만큼 큰 상징성을 가진다. 축제기간에는 거리에 많은 사람들이 전통의상과 함께 가면을 쓰고 홍보하며 대회를 진행하는 등 도시 전체가 축제분위기로 이어진다고 한다.

- 중구에서 진행하는 문화재야행도 지역 전체가 축제분위기로 진행되지만 축제기간이 지나면 기념품사업 등으로 지역경제 활성화에 도움이 되지 않는 못한다. 130여년의 근대역사문화를 더욱 빛낼 수 있도록 상징성 심볼 제작 및 랜드마크 구축이 필요하다.
- 인근 상권에 의상 및 소품 대여샵 및 관련 근대 문화를 살릴 수 있는 업종 지원사업(인테리어, 임차지원금 등), 근대 문화 심볼제작 및 패키지 제작 비용 지원 등 축제기간 이후에도 지속적인 상권활성화를 위한 사업을 추진해야 한다.

(4) 침수피해 한정적 예방사업이 아닌 전체적인 침수예방 프로젝트 필요

- 베니스는 장마로 인한 침수피해가 잦은 곳이다. 장마철에 가면 도시가 물에 잠겨 장화를 신거나 도심에서 수영도 가능하다. 이 때문에 문화재 손상 및 상점과 시설 손해가 2019년에 10억 유로로 심각했다고 한다. 이에 피해지역 보수뿐만 아니라 “모세 프로젝트”라는 80억 유로의 장기 프로젝트로 방벽을 만들어 해안저지선을 만들 수 있도록 설계하여 2023년 완공될 예정이다. 설명을 듣고 일부 지역 보수뿐만 아니라 우리 지역 전체에 맞는 침수방지 프로젝트가 필요하다는 생각이 들었다.
- 영종지역, 용유지역에는 장마피해가 빈번하며 만수와 겹칠 시 물이 빠져 나가지 못하여 피해는 가중된다. 장마철 침수피해를 대비하여 침수지역에 대한 공사 계획은 충분히 진행되고 있지만 해당 지역뿐만 아니라 전체적인 대비책이 필요하다.
- 원도심에도 마찬가지로 피해지역 보수 뿐만 아니라 2022년 지하철과 지하상가, 지하세대 침수피해가 반복되지 않도록 지하공간 배수설비 용량조절, 차수판 공급, 위험지역 경보기 설치 등의 방안이 수립되어야 한다.

(5) 베니스 국제영화제 벤치마킹, “디아스포라영화제” 발전방안 모색

- 중구 아트플랫폼에서 5월에 개최되는 제11회 디아스포라 영화제는 인천을 대표하는 영화제이다. 베니스 국제영화제만큼 역사적으로 오래되고 인정받는 영화제로 자리잡긴 어렵겠지만 특징과 장점을 벤치마킹하여 아시아 유일 ‘디아스포라’라는 한 분야의 영화제로서 국제적인 행사로 발전해야 할 것이다.
- 영화제 추진 전문인력 모집, 행사규모 확대, 연계 축제 및 프로그램 구축, 대규모 홍보전략 수립, 초청범위 국제화를 위한 컨셉 구축 등의 방안을 벤치마킹해야 한다.
- 문화관광부의 문화다양성 확산 사업의 일환인 해당 영화제는 흩어져있는 한민족이라는 의미의 ‘디아스포라’ 목적을 가지고 있는 만큼 재외동포청 설립과 밀접한 연관이 있으며, 재외동포청이 인천에 유치된다면 더 큰 시너지 효과를 줄 것이다.
- 또한 재외동포청이 영종에 유치된다면 행사를 발전 진행할 수 있도록 문화관광부, 인천시와 함께 노력해야 한다.